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스위스

목차

※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 일반

1. 국가개요	4
2. 한국과의 관계	5
3. 경제현황	9
4. 정치	12
5. 주요산업	16

II. 무역

1. 수출입	18
2. 한국과의 수출입	27
3. 수출 유망항목	30
4. 무역협정	33
5. 수입규제 및 관세	37
6. 통관 · 물류	40

III. 투자

1. 투자환경	44
2. 외국인직접투자	48
3. 한국기업 투자	50
4. 투자진출방식	55
5. 외환	61
6. 노무	62
7. 세무	67
8. 지식재산권	70
9. 청산 및 철수	71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72
2. 비즈니스 에티켓	74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74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76

5.출입국 안내	78
6.유관기관	79
7.물가정보	81
8.출장정보	83
9.생활정보	85
10.KOTRA 무역관 안내	97
11.전시회 정보	104
	105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스위스 연방 공화국(Swiss Confederation)
면적	41,285 km ² (자료원 : 스위스 통계청, 2021년 기준(2023년 11월 최신자료))
수도	베른(Bern)
인구	8,815,385 명 (자료원 : 스위스 통계청, 2022년 기준(2023년 11월 최신자료))
민족(인종)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태리계 10%, 로만계 1%, 기타 6% ('민족' 정의의 어려움, 인종 차별의 위험성 등에 따라 스위스 통계청에서 해당 통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음, 자료: 스위스통계청)
언어	독일어(62%), 프랑스어(22.7%), 이탈리아어(8.2%), 로망슈어(0.5%), 기타 언어(22.7%)
종교	천주교(33.7%), 무교(30.9%), 개신교(21.8%), 이슬람교(5.5%), 기타(8.1%)
기후	여름 평균 낮 기온 18~28°C, 겨울 평균 낮 기온 -2~7°C, 봄가을 평균 낮 기온 8~15°C
국가원수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2023.1.1~2023.12.31)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3-02-11 (자료원 :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 무역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스위스 수교	1963-02-11	한국-스위스 수교	
투자보장협정	1971-04-07	투자보장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1976-11-20	정기항공운항협정	
공업소유권협정	1977-12-12	공업소유권협정	
사증면제협정	2018-06-28	사증면제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1-04-22	이중과세방지협정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1990-08-20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	
한-스위스 항공협정	1995-06-17	한국-스위스 항공협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1998-02-02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무역경제협력협정	1999-06-29	무역경제협력협정	
한-EFTA FTA	2005-12-15	한국-EFTA FTA	2016-09-01발효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2006-10-25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한-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2007-10-22	한국-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간 협력협정 의정서	
한-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8-05-06	한국-스위스 과학기술협력 협정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0-12-28	한국-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2012-07-25발효
한-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4-01-20	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	2015-06-01발효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2018-02-09	한국-스위스 통화스와프 계약	서명식: 2018-02-203년 만기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020-01-24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	서명식: 2019년 12월 18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군사비밀정보보호	서명식: 2022년 12월 16일
------------	--	----------	--------------------

한국교민 수

3,882 명 (자료원 :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2021년 기준, 2023년 10월 최신자료))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2019년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다보스포럼 참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클라우드 슈밥(Klaus Schwab) 회장의 초청으로 2019.1.23(수)-25(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WEF의 연차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구화 4.0: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아키텍처(Global Architecture) 형성'이라는 주제로 총 400여개 공개비공개 세션에 약 3,0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지정학, 디지털기술,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정학적 전망' 공개회의에 토론자로 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우리 기업인, 국제기구 대표, 언론인 등 참석자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주최했다. 해당 만찬은 신성철 KAIST 총장,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우리 기업인, Michael Møller UN 제네바사무소(UNOG) 소장, David Beasley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에게 국제기구와의 의견교환 및 네트워킹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 2021년 11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WHO 사무총장과 북한 내 코로나 상황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 논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내 코로나 상황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또한 질스 깔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부총재와 자간 샤파강 국제적십자연맹(IFRC) 사무총장과의 만나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ICRC와 IFRC 측은 대북 인도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으며, 기후변화, 재난관리를 비롯한 개발협력 의제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 2022년 5월 나경원 대통령 특사 다보스포럼 참석

나경원 前 국회 외통위위원장 겸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22.5.23.(월)-26(목)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특사는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비숍 호주국립대 총장(前 호주 외교부장관) 등 주요 여성 지도자들과 교류하였으며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과 면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세계경제포럼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2022년 7월 이도훈 외교차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

이도훈 2차관은 7.4.(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와 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주요 참석 인사로는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화상),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 Cassis 스위스 대통령,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Petr Fiala 체코 총리(EU 의장국), Schulze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G7 의장국) 등이 있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 및 미국, 독일, 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의 기본 방향과 원칙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2022년 10월 오세훈 서울시장 바젤슈타트 주지사와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2년 10월 25일 바젤슈타트주 주도 바젤시에서 베아트 안스 바젤슈타트 주지사와 면담하고 바이오·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2년 9월 29일 서울에서 체결된 서울시와 바젤슈타트주 간 우호도시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으로

, 바젤슈타트주에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 등의 본사를 비롯해 생명과학기업 700여 곳, 연구기관 200여 곳이 있으며 근무하는 전문인력만 약 3만2000명에 이른다. 오 시장은 노바티스 측에 서울시의 대표 헬스케어 정책인 '손목닥터 9988'을 소개하고, 그 외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민간 협력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 스위스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했다. 1월18일에는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투자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AI, 첨단 바이오, 우주 그리고 양자 분야의 영 리더와 오찬을 함께하며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발굴하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 협력을 강력히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보스포럼 참석 이후에는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하여 '양자 석학과의 대화'를 갖고 올해를 양자기술 선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인력양성과 함께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스위스와 같은 선도국들과 연구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 2023년 4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방한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는 양국 간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설립된 협회로, 2023년 6번째 공식 방한했다. 크리스티안 바세르 폴렌 국회의원과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양국 친선을 도모하며 상호교류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원: 외교부, 통일부, 서울시, 경제외교포탈,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

경제

○ 2018년 2월 9일 한국-스위스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2018년 2월 한국과 스위스는 100억 스위스 프랑(약 11.2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통화 스와프 : 계약 체결국끼리 특정 날짜나 기간(만기)을 정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이다.

○ 2018년 6월 5일 한국-EFTA FTA 6차 공동 위원회 개최

한국-EFTA의 이행현황 점검 및 양측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품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스위스 의약품제조관리 기준 상호인정 협정(GMP)*'을 체결했으며 해당 협정은 2020년 1월 24일 공표됐다.

* 한국-스위스 의약품제조관리기준 상호인정 협정(GMP) : 해당 협정은 2020년 1월 15일 발효되었으며, 국내기업은 스위스 의약품청 (Swissmedic)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현지 실태조사, 서류 심사 소요기간이 줄어들어 현지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적용 품목으로는 임상시험용의약품(IMP), 원료의약품(API),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들이 있다.

○ 2020년 2월 10일 한국-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R&D) 기업 모집 공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스위스 Innosuisse와 협력하여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연 5억 원 수준으로 2차에 걸쳐 심사 및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Biotech, Renewable Energy, Digitalization, Additive Manufacturing, Smart Materials, AR을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2020년 6월 5일 한국-EFTA FTA 7차 공동 위원회 개최

한국-EFTA의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함과 동시에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외에 HS 코드 업데이트(기존 2012년 HS코드 → 2017년 HS코드) 및 제3국에서 온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 시 원산지 인정 합의(수출입 업체 편의)에 관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 2021년 5월 스위스-EU 제도적기본협정 결렬

2021년 5월에는 스위스는 최대 무역파트너인 EU와의 제도적기본협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었다. 스위스-EU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in relation to conformity assessment) 또한 의료기기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양자간 의료기기 유통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스위스 외의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경우 이전에는 CE인증만으로 스위스에서 유통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는 스위스 인증대행기관(SAR)을 통해 단일등록번호(CHRN)를 획득한 이후에만 Swissmedic에 등록이 가능하며, 그

때부터 현지 유통이 가능하다. 그 결과 국내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들의 대스위스 의료기기 수출 과정이 복잡해졌다.

○ 2022년 2월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

2022년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스위스 R&D 파트너와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한-스위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했다. 4월 14일까지 Pre-Proposal(개념계획서) 신청받고 8월 1일까지 Full-Proposal(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았다.

○ 2023년 서울시의회, 스위스 대사와 경제분야 협력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13일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Dagmar Schmidt Tartagli) 대사와 서울-스위스 간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도시 간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양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5월 예정된 기획경제위원회의 공무국의 출장에 앞서 스위스 경제와 금융산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금융, Io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선진국인 스위스의 경험 사례에 대해 질문했으며, 타르탈리 대사는 스위스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함께 세계 최대 블록체인 허브 '트러스트 스퀘어'와 다국적 창업기업들을 발굴해 유럽 진출을 돕는 '취리히 투자청' 등의 글로벌 기업 지원시설 현황을 설명했다.

(자료원 : 경제외교포탈, 주스위스 한국 대사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

○ 협회

정부 차원의 문화원은 설치된 바 없으나, 민간 차원에서 Swiss-Korean Cultural Association이라는 비영리 협회를 설립하여 2016년부터 클래식 음악 관련 문화 교류 행사 및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 한류

한류 관련하여 현지 주요 언론사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 요인을 다룬 보도가 늘고 있는데, 그 예로 2021년 스위스공영방송이 보도한 '한국 시리즈물이 연말에 흥행하는 이유는?'(SRF, 2022.6.8.) 및 NZZ 기사 '〈한국의 멋〉의 예상치 못한 승리'(NZZ, 2022.5.18) 등이 있다. 또한 2020년 로잔에서 한류 코리아 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스위스 로잔시 협업으로 시작된 케이팝 댄스 뮤직 행사인 '한류 컴온 인 스위스(Hallyu Com-on in Swiss)'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3년 행사는 10월 8일에 열렸다.

또한 2023년 11월 스위스 주요 일간지인 Tages Anzeiger는 "취리히를 점령하고 있는 한국 식당들- 그 이유는?"(Koreanische Restaurants erobern Zuerich- warum eigentlich?)라는 기사를 통해 한식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자료원 : www.skca.ch, SRF, NZZ, Tages Anzeiger,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	1.2	-2.5	4.2	2.1	
명목GDP (십억\$)	721.8	739	799.7	807.2	
1인당 GDP (PPP, \$)	73,715	71,984	77,120	81,900	
1인당 명목 GDP (\$)	84,473	85,872	92,239	92,371	
정부부채 (% of GDP)	39.5	43.1	40.7	41.2	
물가상승률 (%)	0.4	-0.7	0.6	2.8	
실업률 (%)	2.3	3.2	3	2.2	
수출액 (백만\$)	314,131	319,310	380,194	400,693	
수입액 (백만\$)	277,818	291,972	324,069	357,115	
무역수지 (백만\$)	36,313	27,338	56,125	43,578	-
외환 보유고 (백만\$)	823,440	958,597	1,082,311	985,417	
이자율 (%)	-0.66	-0.72	-0.75	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0.99	0.94	0.91	0.96	

<자료원 : IMF, 스위스국립은행(SNB), Global Trade Atlas>

나. 경제 동향

○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관련 대부분의 보건 규제 조치가 해제되었거나 크게 완화되었다. 관련 서비스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음식점과 서비스, 케이터링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갔다. 국제적으로는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스위스에서도 산업체들이 중간재 부족, 구매 가격 및 배송 기간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특히 제약 산업의 영향으로 3, 4분기에도 계속 상승했다. 민간 소비는 3분기

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6월 말까지 코로나 조치가 광범위하게 완화됨에 따라 지출이 증가했으며 특히 숙박 및 레저 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이 다시 늘었고 해외 여행에 대한 지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의무 폐지로 인해 교통비 관련 지출도 크게 증가하여 특히 국내 대중 교통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가정용 가구, 전자 제품 및 신차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 2022년 상반기

2022년 1분기에도 스위스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노동 시장도 활기를 띄어 고용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상품 수출도 모든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민간 소비 또한 코로나 사태의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났는데, 비록 코로나19 관련 규제 조치로 일부 소비 수요가 둔화되었지만 첫 번째 코로나 파동과 비교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었다. 2월 중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2%를 넘어섰지만, 다른 국가 및 지난 수십 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경제 지표는 연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스위스 경제심리지수(KSS)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과거와 비교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2022년 하반기

2022년 3분기에도 스위스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GDP는 전 분기 대비 0.2% 성장했으며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등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양호한 노동 시장 상황은 민간 부문 지출 증가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약 3.4%를 기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불안감 및 겨울철 에너지 부족 가능성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분기까지는 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2022년 4분기부터 스위스 경제가 정체되기 시작, GDP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으며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품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화학-의약품 수출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제조업 전반의 부가가치 생산은 소폭 하락했다.

○ 2023년 상반기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충격으로 스위스 주요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해당 은행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내셔널뱅크(SNB)의 추가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후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3월 20일,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결정했으며, 크레딧 스위스는 향후 독립은행으로 존재하지 않고, CS 브랜드도 기존 고객을 UBS 시스템으로 이전할 때(2025년)까지 유지하다가 사라질 전망이다.

○ 2023년 하반기

민간소비가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서비스 부문도 폭넓은 분야에서 성장한 반면 투자 및 산업 부문 가치 창출이 감소하는 추세다. 연방 경제청이 2023년 9월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 2024년 전망치는 1.2%로, 금년 및 내년 경제는 평균 이하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해석되며, 특히 2024년에도 독일 및 중국 경제 성장 부진이 예측됨에 따라 스위스 대외무역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료원 : 스위스 연방경제청, Tages Anzeiger, 주 스위스 한국 대사관)

다. 경제 전망

○ 2024년 스위스 경제, 평균('02~'21년 1.84%) 밑도는 저성장 전망

스위스 연방경제청(SECO)이 발표('23.9.20)한 '24년 스위스 경제성장률은 1.2%로, 1.6%('22.말 전망)→1.5%('23.6.전망)→1.2%('23.9. 전망)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24년 글로벌 수요 일부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이 예상되는 반면, △기준금리 인상('23.6.부 1.25%→1.5%)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가가치세 인상('24.1.1.부 7.7%→8.1%), △전기세 인상('24.부 평균27.2센트/kWh(약 402원)→32.14센트/kWh(약 475원))으로 가계 부담 증가 예상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고용) 노동 시장 상황은 양호한 편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24년 실업률 2.3% 예상)되며, (소비) 대출이자 상승 및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둔화된 상품 교역은 '23년 상반기 소폭 회복되었으나, 하반기 글로벌 수요 감소 (신규 주

문 14.3% 감소) 지속 중이다. 산업별로는 항공, 환경 및 에너지 기술은 낙관적으로 전망한 반면, 금속, 자동차, 섬유기업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원 : 스위스 연방경제청)

4. 정치

가. 정치체계

○ 스위스 정치 제도 개괄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18세 이상 유권자)의 참정권을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 4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 등 총 3단계로 분산 위임되어 있으며 각 주정부 및 시·군정부는 독자적인 행정부, 의회, 법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등 업무 조정 및 감독에 있으며 주정부는 연방정부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단, 공공재산, 학교, 경찰, 소방, 보건,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전권을 행사한다.

○ 3단계 국가 권력 분산

스위스 국가 권력은 연방(Bund)정부, 주(Kanton)정부, 시·군(Gemeinde)정부로 분산 위임된다. 연방 정부는 안전보장, 외교관계 유지, 조세, 체신, 금융, 병역 업무의 조정 및 감독, 7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7인의 연방 평의회*가 각 장관직을 담당한다.

* 연방 평의회(Bundesrat)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정당별 구성(총 7명) : 국민당(2명), 자유민주당(2명), 사회민주당(2명), 중도당(1명)

의원은 연방의회에서 선출되며 4년 임기, 연말 상하 양원의 신임 투표를 거쳐 각료 연임 및 차기 대통령/부통령 결정

* 양원제 연방 의회(Parliament)

4년마다 투표로 구성되며, 연방정부의 각 주(Kanton)를 대표하는 상원(Staenderat)과 스위스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하원(Nationalrat)으로 나뉜다

상원 : 4년 임기, 의석수 총 46석. 일부 작은 칸톤을 제외하고(1석) 각 칸톤별 의석수 2석씩 배정, 각 칸톤별 상원의원은 자체 법률에 따라 선출

하원 : 4년 임기, 의석수 총 200석으로 칸톤별 의석은 인구수에 비례. 스위스에서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취리히 칸톤의 경우 34석 배정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결정 사항 시행한다. 단, 주정부는 공공재산, 교육, 경찰, 소방, 보건 및 민방위 운영 등 분야에서는 독자적 전권을 행사한다. 총 26개 주가 있으며 각 주마다 독자적인 헌법, 의회, 정부 및 주 법원 운영, 연방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이법권, 조세권, 행정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시군 정부는 2,136개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 주요 정당

현재 스위스에는 총 11개 정당이 있으며 이 중 국민당(SVP), 사회민주당(SP), 자유민주당(FDP), 중도당(Mitte) 그리고 녹색당(GP)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 그 외 기독교민주당(CVP), 보수민주당(BDP), 녹색자유당(GLP), 복음민주당(EVP) 및 기타 정당 2개가 있다.

2023년 10월 22일 총선 결과 보수의 국민당, 중도좌파 사민당이 기존과 같이 각 1, 2위 정당 지위를 고수했는데 하원기준 의석수는 이전 총선 대비 각각 9석과 2석이 증가했다. 제3당 지위도 중도당이 차지하였으며 이전 총선에서 기후변화 대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을 제치고 제 4정당이 되었던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5석 상실했다.

○ 직접 민주주의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제도가 형성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민, 높은 교육 및 문화 수준, 다양한 언론 매체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정당이 아닌 이익단체, 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발의안을 등록하면 정부가 심사하여 서명 기한 부여, 발의 주체가 6~18개월 간 10만 명 이상 국민으로부터 서명을 득할 경우 해당 안건이 국민투표 안으로 상정된다. 이후 연방 평의회 검토, 국회 및 전문가/업계 의견 청취, 국회의 입장 표명 등 절차를 거쳐 2~3년 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기 도입된 정책에 대한 반대 역시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기에(서명 5만 건 필요) 직접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 및 제재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평가받는다. 국민투표는 1년에 약 4회, 평균 15개 사안에 진행되며 최근 10년간 평균적으로 연방 국민투표 참여율은 약 45.4%를 기록했다. 선거권자는 우편 또는 투표소 방문을 통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자료: 스위스 연방평의회)

나. 최신동향

○ 2021년

- 선거

2021년 스위스 전국구 선거는 없었지만 주(칸톤)정부 차원 선거가 발리스(Valais), 프라이부르크(Fribourg), 솔루투른(Solothurn), 누샤텔(Neuchâtel)지역에서 열렸다. 해당 선거에서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시작된 두 가지 트렌드가 지속되었는데, 첫째, 여성 의원 선출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며(누샤텔, 여성 국회의원 비율 24% 증가), 둘째, 녹색자유당(GLP)나 녹색당(GPS)와 같은 “녹색” 라벨 정당 득

표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 국민투표

2021년 총 4회의 국민투표가 총 13개 사안에 관하여 진행되었으며, 투표의 주요 아젠다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부르카 금지법 (2021.3.7.)

해당 국민 청원의 주요 내용은 스위스에서는 누구도 공공장소, 즉, 길거리, 공공기관, 대중교통,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얼굴 전체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관련된 장소 또는 안전, 건강 등과 관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청원은 유권자의 51.2% 및 20개 주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가결된 국민 청원으로 기록되었다. 투표 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수용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는 문화적 고려 및 국내 안보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캅과 부르카의 공공장소 착용이 잠재적으로 여성 혐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여성 유권자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 연방평의회

2020년 12월 9일, 의회는 2021년 연방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했다. 가이 파멜린(SVP) 후보가 총 유효 투표수 202표 중 188표를 얻어 최초로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그나치오 카시스(FDP) 후보가 부통령으로 지명되어 총 유효 투표수 191표 중 162표를 획득했다.

- 국내 정치 주요 현안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특별 상황' 선언과 함께 연방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평시에 비해 증가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 균형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스위스 연방주의의 장단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관련된 제한 조치, 특히 예방 접종에 반대하는 사회 운동도 눈에 띄었다. 대규모 시위가 수차례 일어났으며 스위스는 예방 접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 국가 중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국민투표와 지방 및 주 선거에서 '반 코로나' 그룹이 출마하기까지 하면서 코로나19의 정치화 및 사회적 양극화까지 동반되었다. 추가적으로 2021년 5월 연방의회가 EU-스위스 간 제도적기본협정에 관한 EU와의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추후 정치적 논쟁과 선거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2년

- 선거

연방의원이었던 우엘리 마우러와 시모네타 소마루가가 2022년 말 사임을 발표하면서 12월 7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며, 의회는 이들을 대신해 알버트 뢰스티와 엘리자베스 바우메-슈나이더를 각각 선출했다.

- 국민투표

2022년 총 3회의 국민투표가 총 10개 사안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투표의 주요 아젠다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장식 축산업 금지 법안 (2022.9.25.)

스위스 동물보호단체인 '세티언스 폴리틱스(Sentience Politics)'의 캠페인을 발단으로 시작된 투표로, 가축의 방목 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사육두수도 현행 대비 낮추는 것이 캠페인의 주요 골자였다. 투표 결과 유권자의 62.86%가 반대 의사를 밝힘으로써 해당 사안은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요 요인은 스위스 정부 및 축산업계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공장식 축산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축산물 값이 올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수입 축산물 소비가 늘어 자국 축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스위스농업연맹 또한 해당 법안은 스위스 농축산업 시스템을 위협한다며 법안 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 선거

스위스 총선('23.10.22., 4년마다 개최)에서 우익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 압승하고, 녹색당(Grüne) 지지율 후퇴했다. 국민당은 27.9% 득표(직전 총선 대비 2.3% 포인트 증가)를 기록하며 최대 의석을 차지한 반면, 직전 총선에서 지지율이 급등했던 녹색당 득표율 3.4% 하락했다. 선거 주요 쟁점은 △이민정책,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였으며, 국민당 압승은 스위스 국민들이 기후 위기보다 이민자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 압승으로 향후 이민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원전 폐지 계획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 반이민정책을 추진해온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민 규제를 통해 스위스 인구 수를 1000만 명(현 870만 명)으로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향후 국경 통제를 비롯한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러-우 사태로 초래된 에너지 공급난 및 에너지 안보 우려로 국민당을 중심으로 원전 폐쇄 계획 재검토 논의가 확산 중이었는데, 국민당 압승으로 해당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베른대학교 정치연구소, 스위스 연방의회)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영세중립국

스위스는 나폴레옹 전쟁 후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 유럽 열강들로부터 영세중립국 지위를 보장받은 후 200년 이상 무력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중립을 기본 대외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스위스의 중립은 강력한 무장중립이 특징으로,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된 제1·2차 세계 대전시에도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는 스위스의 강한 방위력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 앙리 뒤낭(Jean-Henri Dunant) 등 제네바 지역 민간인들이 창설한 국제적십자사의 인도적 활동은 국제사회가 스위스 중립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냉전 종식 이후 동서 진영 간 대결체제의 와해로 전통적 중립주의는 무의미하다면서 스위스도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2000년 이후 동유럽 난민 대거 유입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고조 등으로 민족주의 경서가 확산되며 2003년 10월 총선 이후 보수 성향의 스위스국민당이 최대정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위스는 EU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나, 스위스국민당 등 보수 세력은 스위스의 제재 동참이 자칫 스위스 영세중립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였으며,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와 스위스 영세중립 유지 사이에서 어떻게 스위스 대외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국내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대외정책

- 대EU 정책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가입이 부결되었으며, 2001년 EU 가입협상의 조속 추진 관련 국민투표(‘Yes to Europe’) 또한 반대 77%로 부결되자, EU 가입 자체는 보류하되 EU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대EU 정책을 외교의 최우선순위로 설정, EU와 18개 분야 127개에 달하는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EU 단일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스위스와 EU는 2014년부터 ①자유로운 인력이동(free movement of persons) ②산업표준에 대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③농산물 ④항공 운송 ⑤육로 운송에 대한 규정 등 다섯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제도적 기본협정(institutional framework agreement) 협상을 추진해왔다. 기본협정 최종안이 2018.12월 공개되어 EU는 신속한 체결을 희망했지만, 스위스측은 국내절차 완료가 동 협정 타결을 위한 선결요건임을 강조하고 ①임금·근로자 보호조항 ②정부 보조금 ③EU시민들의 스위스 사회보장 수혜 관련 EU시민권 지침 채택 등 세 가지 우려사항을 EU측에 제기하면서 협상은 2년 이상 교착상태를 지속했다. EU는 동 기본협정 체결이 지연되자 2019년 6월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동등성 인정을 종료시키면서 스위스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5월 스위스 정부는 7년간 진행해 온 동 기본협정 협상을 종결하기로 EU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는 양측간 기존 개별 협정을 갱신하는 형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스위스의 EU 결속기금 지불이 EU 단일시장 진입의 대가임을 명시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측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22년 11월 스위스 정부는 EU와 기본협정 대신 양자협정(III)을 목표로 하는 데 합의했으나, 스위스의 고임금 보호와 이민 문제 관련 여전히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대유엔 정책

스위스는 2002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유엔의 인권 증진,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군비 감축, 환경 문제, 빈곤 타파 등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안보리 개편 관련, 안보리의 국제평화유지 역할을 강조하며 이사국 확대 등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스위스의 대유엔 정책의 핵심요소는 평화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증진이며, 제재 대상국의 특정 개인 및 집단에 한정된 제재(smart sanctions)를 지지하고, 인권·민주주의·법치 등의 촉진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2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3-2024 임기)으로 최초 선출되었다.

- 국제평화유지 활동

스위스는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OSCE) 창설 회원국으로서 1996년, 2014년의 장국과 2019년 OSCE 안보협력포럼 의장국(4개월)을 수임한 바 있으며, 민주주의, 경찰행정, 사법제도 및 법치주의, 중재, 인권 등 관련 사업과 임무단·전문가 파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래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NNSC) 일원으로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후 구유고, 팔레스타인, 이란·이라크, 레바논, 사이프러스, 코소보 등지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했다.

- 환경외교

스위스는 환경문제를 국가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는 데 동참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파리기후협정이 해외 배출량 감축사업을 통한 배출량 상쇄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루(2020년 10월), 가나(2020년 11월), 세네갈(2021년 7월), 조지아(2021년 10월), 바누아투/조지아/도미니카연방(2021년 11월), 태국(2022년 6월), 우크라이나(2022년 7월) 등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양자 기후보호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정 이행 및 탄소중립 달성의 법적근거로 활용코자 전면 개정을 추진했던 이산화탄소법안은 스위스 국민당, 자동차 수입협회, 석유협회 등의 반대로 2021년 6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대외관계 주요 기관

- 스위스 개발협력청

스위스 개발협력청은 수원국과의 양자협력 또는 유엔,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등을 통한 다자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스위스 원조단체 참여를 통한 인도주의 원조활동을 수행한다. 북한,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예멘, 말리, 차드호 지역(니제르, 차드), 남수단,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호수 지역(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의 볼, 미얀마, 콜롬비아, 아이티 등이 인도지원의 우선 대상국이다.

- 스위스의 재외공관

스위스는 총 166개의 재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교부 전체 인력의 30%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사관 : 103개소, 총영사관: 30개소, 대표부 등: 33개소)

(자료: 주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

라. 정책 · 법령

스위스는 민주주의의 증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 경제 성장과 안정을 보장 등을 위한 복잡한 정책 및 법률 시스템을 갖춘 연방공화국이다. 스위스의 오랜 연방주의 전통은 대다수의 정책 영역이 연방정부보다는 주(칸톤) 정부의 책임과 권한임을 의미하나, 연방정부도 국가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스위스의 주요 정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스위스 연방 헌법은 스위스 최고 법으로 스위스 국가의 기본 원칙을 명시한다. 이 헌법은 연방 정부 체제를 확립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연방 및 주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한다.

○ 교육 정책

연방 정부는 커리큘럼, 교사 연수 및 평가 요건을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주(州)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며 이러한 기준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연방 정부는 또한 교육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스위스 국립과 학재단(SNSF)은 스위스 교육 연구의 주요 자금원으로, 스위스 전역의 연구자 및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스위스의 교육 정책은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업과 평생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장려함을 목표로 하며,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스위스 대학의 높은 수준과 더불어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보건 정책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상 거주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의료 보험의 최소 보장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기준에는 입원, 의사 서비스, 처방약, 예방 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또한 의료 산업을 규제하고 의료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가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치료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규제, 감독하는 기관이다. 더불어 연방 공중보건국(FOPH)은 국가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의 이행을 감독한다.

○ 환경 정책

스위스는 엄격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엄격한 환경 정책을 운영 중으로, 이에 따라 탄소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을 도입했다. 주요 정책 중 하나로는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연방법'(the Federal Act on the Protection of Nature and Cultural Heritage)이 있는데,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역시 스위스의 주요 국가 정책 중 하나인데, 태양열, 풍력, 수력 에너지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2035년까지 11,400기가와트 전기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 이민 정책

스위스 이민 정책은 숙련된 노동자 수급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과 국내 외국인 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국민 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발전되어왔다. 이민 정책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EU 국민들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는 스위스-EU간 양자협약이 있다. 스위스는 EU 비회원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는 연도별 인원수를 제한하는 쿼터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에 따라 스위스 고용주들은 제3국 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해당 개인의 개술, 자격, 스위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스위스 연방 의회, 에너지청, 이민청, 교육연구이노베이션청, 보건청)

5. 주요산업

가. 개요

스위스 노동인구의 대다수는 주로 무역, 금융,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무역에서는 화학 및 제약, 기계전자금속, 시계 산업은 수출과 함께 원자재 글로벌 유통이 발달해 있으며 은행과 보험 등 금융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은 화학 및 제약 산업체와 기계/금속 공학이 주도하고 있으며 2021년 스위스 GDP의 18%가 제조업에서 창출되었다. 또 다른 주요 산업은 관광업으로, 특히 알프스 지역이 관광산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농업은 스위스 경관과 전통을 형성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광 산업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량 자급률은 약 56%로 높은 편이다. (자료: 스위스 연방의회)

나. 주요 산업별 현황

○ 화학 및 제약

화학 및 제약 산업은 2020년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6.3%를 차지, MEM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수출액으로는 전 산업분야 1위를 차지했다. 화학 및 제약 산업은 매년 1,160억 스위스프랑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52%를 차지한다. 2020년 화학 및 제약 산업은 스위스에서 약 74,000명, 해외에서 338,000명 이상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산업 부문은 몇몇 특정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제약 분야에서는 Novartis, Hoffmann-La Roche, Cilag GmbH, Celgene International II 등이 있으며, 화학 분야에서는 Givaudan International, Trinseo Europe, Estée Lauder 등이 있다. Hoffmann-La Roche와 Novartis는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 회사들이지만 업계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들이며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바젤, 취리히, 추크, 제네바 호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기계/전자/금속산업

기계, 전자 및 금속산업(MEM 산업) 부문은 스위스에서 최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문이자 최대 수출 산업 중 하나다. 기계, 전기 및 금속 산업(MEM 산업이라고도 함)에는 약 32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99%가 고용인 수 25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기계, 전자 및 금속산업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산업으로, 전체 수출 상품의 약 30%를 차지하며 이 중 약 60%가 EU로 수출된다. 해당산업은 19세기 직물 제조에서부터 발전해왔는데, 스위스 기업들이 생산을 기계화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경쟁업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체 기계를 개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10대 기계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공작 기계, 섬유 및 인쇄 기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으로는 ABB, Liebherr, Georg Fischer, Sulzer, Bucher Industries, Bühler Holding 및 Schindler 등이 있다.

○ 시계 산업

1970년대와 80년대에 전기 손목시계 및 일본과의 경쟁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은 위기에 빠졌으나 이후 재도약의 시기를 거쳐 서서히 회복했다. 수출액이 1986년 43억 스위스프랑에서 2021년 223억 스위스프랑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스위스에는 약 700개의 시계 제조 회사가 있으며, 대부분 제네바와 유라 지역에 위치해있다.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업체로는 스와치 그룹,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 LVMH 스위스 매뉴팩처 SA 등이 있다.

○ 원자재무역

스위스는 세계 원자재무역의 거점 중 하나로, 특히 설탕, 면직, 유지종자, 곡물 무역에서 세계적 선두 자리에 있다. 스위스 내 원자재무역 부문 종사자 수는 약 35,000명이며 국내 총생산의 약 3.8%를 창출한다. 스위스 내에는 총 550여개의 원자재 무역 업체가 있으며, 대부분은 제네바, 추크, 루가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업체로는 Glencore, Trafigura, Mercuria, Gunvor, Vitol 등이 있다. 스위스의 무역 전통은 앙리 네슬레, 살로몬 볼카르트, 앙드레 시와 같은 선구자들이 상품 거래를 시작한 19세기 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세기 초에는 제네바 감시국(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이, 1950년 이후에는 Cargill과 Alcoa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제네바를 국제 상품 거래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 만들어왔다. 숙련된 노동력, 높은 삶의 질, 고도로 발달된 금융 시스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상품 거래 중심지로서 스위스의 매력에 기여하고 있다.

○ 금융업

은행과 보험사는 스위스 경제의 주축으로, 각각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창출하고 있다. 2020년 금융 부문의 부가가치는 약 680억 스위스프랑, 정규직 직원 수는 약 208,800명에 달했으며, 2019년 서비스 수출의 약 24%를 차지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스위스 은행들은 2019년 말 25%의 점유율로 글로벌 국경간(cross-border) 자산 관리 분야의 선두였다. 2019년 스위스 은행은 7조 8,930억 스위스프랑의 자산을 관리했으며, 이 중 약 절반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총 239개의 은행(2021년 기준)이 있으며 특히 UBS와 CS(크레디트 스위스)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이었는데, 2023년 3월 CS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에 처하면서 UBS의 CS 인수가 결정됐다. 나머지 50%는 24개 주정부 은행, 외국계 은행, 증권거래소 은행, 지방 은행, 저축은행, 프라이빗 뱅커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4분의 3을 해외에서 창출하는데, 2020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2,913억 스위스프랑을 넘어섰다. 스위스에 있는 약 200개의 보험사 중 6개가 대기업으로 최대 규모 민간 보험사는 Zurich Insurance Group이며, Chubb, SwissRe, Swiss Life가 그 뒤를 잇고 있다.

○ 관광업

유럽 중앙에 위치해 접근이 쉽고 호수, 숲, 산, 깨끗한 공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스위스에서 관광산업은 경제에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 중 하나다. 2021년 관광산업은 스위스 국내 총생산의 약 2.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약 167억 스위스프랑에 해당한다. 전체 노동 인구의 약 3.8% 가량이 관광업에 종사 중이며 대부분이 숙박업, 교통업, 요식업에 종사한다. 코로나19 및 관련 규제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영역 중 하나였던 관광산업은 2020년 -25.6%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1년 다시 10.7% 성장하여 현재까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 농수산업

1차 산업은 스위스 국내 총생산의 약 0.7%(2020년)를 차지하며 이 중 절반 가량은 축산업에서, 나머지 절반은 경작 농업에서 발생한다. 치즈와 시리얼과 같은 특정 제품군은 수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내수 시장에서 소비된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수십 년 간 농업 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되어왔다. 2005년과 2021년 사이 스위스 내 농장 수는 64,000개에서 48,864개로 감소했으며, 1990년에는 농업이 전체 부가가치 창출의 2.2%를 차지했지만 2000년에는 1.1%, 2020년에는 약 0.7%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서비스 산업이 강화되는 스위스의 경제 구조적 변화 및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들과의 경쟁 등이 꼽힌다. 그러나 스위스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업용 경작지는 스위스 전체 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특유의 경관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스위스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약 56%(2020년 기준)를 공급하여 국가 식량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기농 농업은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스위스 전체 농장의 17% 이상(2021년 기준)이 유기농 농장을 운영중이다. 유기농 제품은 현재 스위스 전체 식품 시장의 10.9%(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부문을 보호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농업과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 예산의 약 4.2%에 해당하는 28억 스위스프랑을 투입하기도 했다.

(자료: 스위스 연방의회)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스위스는 국내총생산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주요 무역 상대국은 선진국들이며, 특히 EU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수출동향)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액 증가 추세가 주춤하였으나 2021년 총수출액 3천 8백억 달러, 2022년 4천억 달러 기록하며 회복중이다.

○(수입동향) 2019년 스위스의 대 세계 수입액은 소폭 감소(-0.57%) 한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중으로 2020년부터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수출) 2022년 주요 수출국은 미국(점유율 16.34%), 독일(14.56%), 중국(11.02%), 이탈리아(6.27%), 프랑스(5.23%) 등이며 특히 對터키 수출액이 2021년 대비 349%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주요 수출국 순위 8위로 급등했다. 이는 對터키 귀금속 수출액이 2021년 대비 2022년 1,000% 이상 증가한 결과이다.

○ (수입) 2022년 對미국 및 프랑스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對미국 주요 수입 항목 중 귀금속, 의료 용품, 화학 제품 등의 수입액이 증가했으며, 對프랑스 주요 수입 항목 중에서는 석유, 비행기 및 부품, 의약 제품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스위스 연방관세국경보안청)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805,145,963
2	미국	44,329,735,427
3	영국	28,366,625,422
4	중화인민공화국	21,882,519,321
5	프랑스	20,096,010,800
6	인도	18,763,201,994
7	이탈리아	16,375,931,486
8	홍콩	9,978,160,365
9	일본	8,238,487,201
10	스페인	7,941,750,824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3,328,573,334
2	독일	49,403,290,173
3	중화인민공화국	17,575,593,011
4	영국	16,809,735,478
5	프랑스	16,768,288,079
6	이탈리아	15,477,334,868
7	인도	12,034,735,701
8	오스트리아	8,220,628,286
9	스페인	8,134,589,280
10	일본	7,550,191,416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2,838,428,323
2	독일	55,325,645,519
3	중국	33,160,050,585
4	인도	32,127,319,569
5	이탈리아	20,274,638,088
6	프랑스	19,319,181,197
7	영국	14,176,067,861
8	스페인	13,924,610,494
9	홍콩	10,298,117,545
10	오스트리아	10,272,741,119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146,522,632,318

2	미국	65,261,102,564
3	독일	53,729,831,228
4	중국	44,096,271,895
5	이탈리아	25,777,642,206
6	프랑스	21,225,253,445
7	인도	14,975,603,698
8	영국	13,364,609,334
9	튀르키예	12,846,692,318
10	슬로베니아	12,058,554,38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7,690,146,320
2	이탈리아	22,454,746,686
3	프랑스	18,860,575,004
4	미국	18,837,900,321
5	영국	16,556,047,817
6	중화인민공화국	15,136,774,306
7	아랍에미리트	15,133,777,729
8	오스트리아	8,454,759,205
9	아일랜드	7,591,834,484
10	스페인	6,450,980,25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6,847,708,399
2	이탈리아	23,670,865,703
3	미국	20,949,882,329
4	중화인민공화국	17,664,561,361

5	프랑스	17,113,361,537
6	영국	16,740,157,294
7	홍콩	12,081,048,895
8	아랍에미리트	10,097,769,325
9	오스트리아	8,957,386,545
10	타이	8,179,340,88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2,266,452,853
2	영국	36,428,181,052
3	미국	24,227,114,856
4	이탈리아	23,888,963,215
5	중국	19,810,944,305
6	프랑스	18,847,341,030
7	오스트리아	10,030,593,797
8	스페인	9,071,153,829
9	아랍에미리트	8,729,312,167
10	부르키나파소	7,052,055,381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EU	188,049,893,349
2	독일	69,975,892,192
3	미국	38,080,001,203
4	이탈리아	24,855,872,576
5	프랑스	22,992,655,252
6	중국	21,543,903,676
7	영국	14,357,277,247
8	오스트리아	11,551,113,207

9	스페인	9,540,235,871
10	아랍에미리트	9,198,033,94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 주요 수출품목은 귀금속, 의료용품, 유기화학품, 시계 및 그 부품, 기계류 등이 있다.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의료 용품 수출액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 분야에서 수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수입) 주요 수입품목은 귀금속, 의료용품,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등이 있다. 코로나19 및 락다운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증가하고 인근국 경기가 회복하면서 2022년 의료 용품, 전기기기, 귀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스위스 연방관세국경보안청)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3,180,525,041
2	300490	기타	42,346,530,645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9,674,239,085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582,778,676
5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10,446,941,934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776,053,388
7	293399	기타	4,775,606,882
8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611,984,634
9	293359	기타	3,486,786,269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469,219,35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6,353,930,564

2	300490	기타	42,541,493,527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4,594,659,866
4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9,192,445,212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039,113,343
6	293399	기타	5,472,119,463
7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5,271,964,791
8	293359	기타	4,065,274,619
9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028,739,912
10	293719	기타	3,070,033,367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8,257,363,565
2	300490	기타	44,365,112,032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38,003,210,600
4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11,890,802,014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36,466,210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8,299,994,330
7	293399	기타	7,922,036,346
8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6,403,315,504
9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5,822,102,678
10	293359	기타	4,522,243,837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98,556,908,426
2	300490	기타	58,045,377,525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 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51,989,391,900

4	271600	전기에너지	18,728,211,820
5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15,176,623,840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4,903,369,407
7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4,647,068,530
8	293399	기타	11,057,287,167
9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7,755,485,132
10	293359	기타	7,093,587,45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60,280,269,866
2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6,394,339,251
3	300490	기타	15,766,624,727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805,168,094
5	293359	기타	4,438,193,646
6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281,167,171
7	271019	기타	4,046,702,630
8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473,231,570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141,663,206
10	300439	기타	2,988,051,54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87,463,949,089
2	300490	기타	20,079,114,726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805,098,649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6,472,226,736
5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896,454,833
6	300439	기타	3,684,032,888
7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2,296,665,200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103,418,941
9	271019	기타	1,967,023,596
10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955,181,256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91,788,144,231
2	300490	기타	22,148,323,945
3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8,048,001,321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7,929,523,689
5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5,698,200,268
6	271600	전기에너지	3,682,649,446
7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582,086,019
8	300439	기타	3,445,641,747
9	271019	기타	2,702,894,640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801,769,76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1,742,257,119
2	300490	기타	50,207,584,963
3	271600	전기에너지	17,289,814,072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12,622,669,694
5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1,910,213,887
6	271019	기타	8,634,144,741
7	300439	기타	7,618,453,644
8	271121	천연가스	6,737,437,077
9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5,892,949,622
10	300214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232,742,502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 무역수지

한국의 對스위스 무역수지는 지속적 적자 추세로, '21년 최고 적자폭 기록 후 회복 중이다. '23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1.5% 증가한 745백만 달러, 수입은 0.6% 감소한 2,15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스위스 연방관세국경보안청)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한국의 對스위스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중으로, 2021년 최고 적자폭을 기록한 후 회복 중이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1.5% 증가, 수입은 0.6% 감소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9	589	2,980	-2,391
2020	716	2,749	-2,033
2021	855	3,360	-2,505
2022	974	3,244	-2,270
2023	827	2,427	-1,6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수출

2022년 총수출 규모는 97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316백만 달러, 총 수출의 32%), 전기자동차(93백만 달러, 9.5%), 금(68백만 달러, 6.9%), 자동차(45백만 달러, 4.6%) 등으로 상위 4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 차지한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수출액은 총 74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5% 증가했으며, 품목별로는 바이오 의약품(HS코드 300214, 300215)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의약품 수출액이 증가했다('23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 수입

2022년 총수입 규모는 3,24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5%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시계(848백만 달러, 총 수입의 26%), 의약품(523백만 달러, 16%), 주얼리(148백만 달러, 4.6%), 커피(127백만 달러, 3.9%) 등으로 상위 4개 품목이 전체 수입의 50% 이상 차지한다. 특히 커피 수입량이 2018년 대비 2022년 198%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및 관련 규제 조치로 인해 가정에

서 커피를 소비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스위스 네슬레 등 캡슐 커피 제조 및 수출 업체가 호황을 누렸다.

2023년 8월 누계 기준, 수입액은 총 2,15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하였는데, 시계(-7.1%), 의료용 기기(-8.1%)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커피류(15.5%), 펌프(28.1%) 수입액은 증가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316	523	-207
2	7414	전기자동차	93	0	92
3	1111	금	68	35	32
4	7411	승용차	45	0	45
5	1113	백금	46	6	39
6	5182	시계	32	848	-817
7	7419	기타자동차	36	0	35
8	0245	단백질류	0	2	-3
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21	5	16
10	8343	인쇄회로	19	1	1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62	의약품	235	446	-211
2	7414	전기자동차	118	0	118
3	1111	금	91	12	79
4	7411	승용차	54	0	54
5	1113	백금	48	23	25
6	5182	시계	35	601	-566
7	7419	기타자동차	33	0	33
8	0245	단백질류	28	2	26
9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13	3	10
10	8343	인쇄회로	13	0	1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82	시계	32	848	-817
2	2262	의약품	316	523	-207
3	5183	주얼리	18	148	-130
4	0151	커피류	0	127	-128
5	7112	펌프	12	116	-104
6	8151	계측기	1	82	-82
7	7331	의료용기기	4	87	-83
8	2261	농약	0	40	-41
9	7512	밸브	0	88	-88
10	7216	화학기계	0	46	-4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5182	시계	35	601	-566
2	2262	의약품	235	446	-211
3	5183	주얼리	12	106	-94
4	0151	커피류	0	98	-98
5	7112	펌프	6	89	-83
6	8151	계측기	2	63	-61
7	7331	의료용기기	3	62	-59
8	2261	농약	0	56	-56
9	7512	밸브	0	44	-44
10	7216	화학기계	0	39	-3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 (US\$백만)	621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7.7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인지도 및 수요 점진적 증가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매장 증가 - K-pop 인지도 증가, 유튜브 등 SNS상 K-beauty 유행 - 총수입(백만불) : '20년(534)→'21년(614)→'22년(621) - 한국산 수입(백만불) : '20년(8.8)→'21년(6.6)→'22년(7.7)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백만불) - 독일(168.7), 프랑스(145.2), 미국(51.6)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는 CPNP 인증이 필수는 아니나 대부분의 수입 업체가 타 유럽 시장 공략 및 안전성의 이유로 인증을 요구. 동 인증은 서류가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 • K-뷰티 초기에는 여러 디스트리뷰터에서 K-뷰티 취급을 하였으나 경쟁 과다로 현재 소수 업체만이 유통 • 대형 종합 유통망/뷰티 프랜차이즈 유통망의 경우 유럽 시장 내 입증된 제품을 희망하고 직접 구매하기 보다 벤더를 통해 간접 조달하기 때문에 K-뷰티 전문 현지 유통망을 통해 레퍼런스 선 확보 필요 		

○ 라면

HS CODE	190230	수입액 (US\$백만)	41.5
수입관세율(%)	23.90	대한 수입액 (US\$백만)	4.4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의 수출 지속 증가 • 수출액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망 내 종류 다양화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지속 증가세 - 총수입(백만불) : '20년(36.1)→'21년(40.0)→'22년(41.5) - 한국산 수입(백만불) : '20년(2.0)→'21년(2.5)→'22년(4.4) • 소비자 인지도 증가에 따른 제품 다양화 - 현지 대형 유통망 : '19년 1개 →'22년 3개 - 바이어 인터뷰 결과, 현지 내 높은 채식주의자 인구로 인해 채식 라면의 수요가 꾸준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시장과의 차이점 - 아시아 전문 식품점/한국 식품점의 경우 20개 이상의 다양한 종류 취급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기업 Nissin 출시 소바 라면, 독일 Knorr사의 Asia Noodle 시리즈 인기 - 일본식 미소 라면은 동남아시아 요리를 현지화한 것으로 한국 라면과 큰 차이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유통망 납품 벤더의 2차 벤더로 진출 • 시장 점유율 확대 중인 온라인 마트 공략 • 아시아 마트 혹은 한인 마트를 통한 진출 • 라벨, 포장, 식품 관련 수입 절차(스프 내 육류 포함 시) 등 세부사항 확인 필수 		

○ 완구

HS CODE	9503	수입액 (US\$백만)	502
수입관세율(%)	0	대한 수입액 (US\$백만)	1.5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의존성이 높으며 한국산 수입 증가 추세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시장 수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맞물려 하반기에 매출 집중 - 총수입(백만불) : '20년(455)→'21년(531)→'22년(502) - 한국산 수입(백만불) : '20년(1.8)→'21년(2.0)→'21년(1.5) 항상 수요가 높은 레고류 제외. 실리콘 소재의 피젯 토이의 인기가 높으며 성인을 겨냥한 피규어, 인형 등 키덜트 제품도 꾸준히 수요 상승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기준 주요 수입 대상국(백만불) - 중국(248), 독일(113), 체코(41)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대형 유통망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장 효과적이거나 아마존 등 온라인 입점 및 실적 우수 제품이 유리. 레퍼런스 확보 필수적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 이용률 증가. toys.ch와 같은 장난감 전문 온라인 쇼핑몰 혹은 Galaxus와 같은 대형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 유아용 완구의 경우 안전성이 매우 중요. CE 인증 필수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블록체인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금융계, 은행 비밀주의 포기 이후 금융분야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및 핀테크에 관심 증가 글로벌 블록체인 중심지(Cryptovalley)로 부상, ICO 관련 제도 정비 등 생태계 조성 중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을 활용한 token/crypto-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Zug市에 Crypt Valley 구축, 관련 기업 및 인력이 풍부한 생태계 조성 중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thereum, Monetas, XAPO 등 기업들이 기 진출 전세계 ICO 중 약 30%가 스위스를 통해 진행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체인 : 현지 VC 행사(Kickstart Accelerator 등) 활용, Zug 등 혁신지역에 스타트업 진출, Swisscom Blockchain 등 대기업과 기술협력 등 ICO : Ethereum 등을 벤치마킹하여 현지에 비영리 재단 또는 법인 설립 후 Crowdsale 진행

○ 비디오 게임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게임 및 관련 콘텐츠 산업(스트리밍 등) 확대 트렌드가 스위스로 확산 현지 소비시장 견고. 게임 인구 3백만 명(총 인구의 약 1/3) 이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게임개발자협회(Swiss Game Develop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산업 규모는 5천만 CHF 수준 Swisscom은 '18.10월 스위스 최초로 e스포츠 방송(ESL tv, ES1) 및 자체 e스포츠 리그 'Swisscom Hero League' 발족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솔 게임 시장 점유율은 Playstation4(41.8%), Switch(29.2%), Xbox one(13.2%), Nintendo 3DS(4.8%) 순으로 글로벌 대기업 위주 모바일 게임의 경우 Google Playstore 기준 인기 어플 상위권은 핀란드의 Kitka Games, 베트남의 Zego Studio 등 기업 규모 및 국적 다양

진출방안

- 현지 모바일 게임 시장은 비교적 진입장벽 낮아 Localisation(게임 현지화) 투자 시 기대 가능
- Zurich Game Show(취리히), Ludicious(취리히), HeroFest(베른) 등과 같은 현지 게임 컨벤션 기회 활용 가능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960-01-04	1960-05-03	영국,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가입하였으나 유럽연합가입을 위해 탈퇴하였음.
EFTA-터키 FTA	터키	1991-12-10	1991-04-01	2021년 10월 1일 개정안 체결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EFTA가입국 및 28개 EU국가	1992-05-01	1994-01-01	EFTA가입국가들이 EU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EU단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협정임.
EFTA-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1992-09-17	1993-07-01	
스위스-페로이제도 FTA	페로이제도	1994-01-12	1995-03-01	양자 간 협정
EFTA-모로코 FTA	모로코	1997-06-19	1999-12-01	
EFTA-팔레스티나 자치구 FTA	팔레스티나 자치구	1998-11-30	1999-07-01	
EFTA-마케도니아 FTA	마케도니아	2000-06-19	2002-05-01	
EFTA-멕시코 FTA	멕시코	2000-11-27	2001-07-01	
EFTA-요르단 FTA	요르단	2001-06-21	2002-09-01	
EFTA-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02-06-26	2003-01-01	
EFTA-칠레 FTA	칠레	2003-06-26	2004-12-01	
EFTA-레바논 FTA	레바논	2004-06-24	2007-01-01	
EFTA-튀니지 FTA	튀니지	2004-12-17	2006-06-01	

EFTA-대한민국 FTA	대한민국	2005-12-15	2006-09-01	대한민국과 맺은 FTA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 협정.*주: 회원국 간의 관세 인하 등 무역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경제블록화(예: EU, NAFTA, APEC)
EFTA-남아프리카 관세동맹 FTA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6-08-07	2008-05-01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EFTA-이집트 FTA	이집트	2007-01-27	2008-09-01	
EFTA-캐나다 FTA	캐나다	2008-01-26	2009-07-01	
EFTA-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2008-11-25	2011-07-01	
스위스-일본 FTEPA	일본	2009-02-19	2009-09-01	FTEPA(Fre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무역 공동체 협정, 양자 간 협정
EFTA-세르비아 FTA	세르비아	2009-12-17	2010-10-01	
EFTA-알바니아 FTA	알바니아	2009-12-17	2010-11-01	
EFTA-GCC국가 FTA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2009-06-22	2014-07-01	GCC국가: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EFTA-우크라이나 FTA	우크라이나	2010-06-24	2012-06-01	
EFTA-페루 FTA	페루	2010-06-24	2015-12-01	
EFTA-홍콩 FTA	홍콩	2011-06-21	2012-10-01	
EFTA-몬테네그로 FTA	몬테네그로	2011-11-14	2012-09-01	
EFTA-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FTA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2013-06-24	2015-12-01	
EFTA-중미국가 FTA	코스타리카, 파나마	2013-06-24	2014-08-29	중미국가(연합):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스위스-중국 FTA	중국	2013-07-06	2014-07-01	양자 간 협정, 2007년 11월 회담에서 FTA에 관련 언급이 나왔으며, 2011년 공식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2011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리커창 (Li Keqiang)총리가 스위스를 방문하여 7월 공식 협상 완료하였다.
EFTA-필리핀 FTA	필리핀	2016-04-28	2018-06-01	
EFTA-조지아 FTA	조지아	2016-06-27	2018-05-01	
스위스-영국 무역협정	영국	2019-02-11	2021-01-01	영국의 EU탈퇴로 기존의 스위스-영국 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2019년 2월 스위스-영국 무역협정을 체결함 . 해당 협정은 영국의 EU 최종탈퇴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인 2021년 1월 1일 발효됨.
EFTA - 에콰도르 FTA	에콰도르	2018-06-25	2020-11-01	
EFTA - 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2018-12-16	2021-11-01	
스위스-미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상호 인정 협정	미국	2023-01-12	2023-07-27	
스위스-몰도바 FTA	몰도바	2023-06-27	2023-06-28	

<자료원 : 스위스 경제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EFTA-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현재 보류 중	
EFTA-알제리 FTA	알제리	현재 보류 중	
EFTA-인도 FTA	인도	현재 진행 중	
EFTA-베트남 FTA	베트남	현재 진행 중	
EFTA-MERCOSUR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현재 진행 중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FTA-태국 FTA	태국	현재 보류 중	

EFTA-모리셔스 FTA	모리셔스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몽골 FTA	몽골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파키스탄 FTA	파키스탄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미얀마 FTA	미얀마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나이지리아 FTA	나이지리아	현재 진행 중	협업선언국가
EFTA-센트럴 아메리카 FTA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혼두라스, 파나마	현재 보류중	체결: 2015년 6월 22일
EFTA-코소보 FTA	코소보	현재 진행중	
EFTA-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현재 진행중	

〈자료원 : 스위스 경제 사무국〉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스위스 수입제한은 주로 UN 안보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제 제재에 맞춰 시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EU에서 시행하는 경제제재도 시행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북한, 소말리아 등을 대상으로 군 장비, 원료 및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원산지가 개성공단일 경우, 한-EFTA의 역외가 공방식으로 특례 인정). 공산품 중,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들은 국가의 안전, 환경,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방사성 물질, 무기, 폭약, 마약, 유해폐기물, 야생동물 등이 있으며, 필수 비축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와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등이 있다. 해당 품목들을 스위스에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스위스는 2022년 2월 28일 EU의 대 러시아 제재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총기, 탄약, 폭발물, 화약류, 철강 및 철강 제품, 항공우주 제품, 에너지 등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스위스 산 산업용 로봇, 화학제품 수출이 금지되었다. 또한 스위스에서 수출된 품목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국가로 재수출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라크, 미얀마, 수단, 콩고, 벨라루스, 레바논, 이란, 소말리아 등 국가에 수출입 제재 조치가 시행 중이다.

○ 스위스의 수입 규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https://www.ezv.admin.ch/ezv/de/home/information-firmen/verbote--beschraenkungen-und-auflagen.html> 참조

○ 스위스의 수출입 제재국 현황은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exportkontrollen-und-sanktionen/sanktionen-embargos/sanktionsmassnahmen.html 참조

(자료: 스위스 연방경제청)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스위스는 유럽연합(이후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과 통지에 대한 조례(Accreditation and Notification Ordinance)를 제정하고 인증 당국(SNV)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게 EU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공통 EU 표준을 준수하고 CE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제정했다.

스위스 표준협회 SNV(Schweizerische Normen-Vereinigung)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유럽 표준화 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의 회원기관으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다. 독일의 표준화 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1996년 국제사회에서 SNV를 스위스의 국가표준 공식기관으로 지정했다.

SNV는 스위스 시장의 전반적인 인증(법규, 표준화,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19년을 기준으로 7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에서 스위스의 규격, 인증 관련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포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해주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기술 정보 센터 SWITEC(SNV가 운영)에서 확인 가능. <https://www.switec.info/en/wto-enquiry-point/sme-portal/> 참고

(자료: SWITEC)

TBT

스위스는 WTO/TBT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V의 품질 관리 기준을 EU 규격과 90% 이상 일치시키고 있으며, 유럽 사법 재판소의 카시스 드 디종 (Cassis-de-Dijon) 원칙**을 도입하여 EU 혹은 EFTA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스위스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케 했다. 단, 2015년 5월부터 스위스 국회에서 식품 분야에 한해 동 규정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더라도, 스위스 식약청(The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로부터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 Negative 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외의 국가들과는 국제 상호인정 협력을 (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맺고 있다.

* WTO/TBT 협정: 상품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문

**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원칙: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로,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출시된 모든 제품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제약 없이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

- 카시스 드 디종 Negative List :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barrieren/Cassis-de-Dijon-Prinzip.html

*** 상호인정 협력(MRA): 협정 체결국 간의 제품 규제 조건을 인정,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barrieren.html 참고)

참고로 2018년 6월 한국과 스위스는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2020년 1월 15일부로 발효되었다. (나. 최근 양국 간 현안 이슈 - 경제 부문 참고)

기타

2021년 5월 26일, 스위스-EU 제도적기본협정(InstA: institutional framework agreement)이 양자간 이견으로 인해 결렬되었다. 1992년 국민투표 부결로 최종적으로 스위스가 유럽연합 가입에서 제외가 되면서, 스위스와 EU간에 20여개의 큰 양자협정, 작은 범위에서는 100여개의 협정이 있었는데, 2014년 이러한 크고 작은 협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제도적기본협정이다. 이 제도적기본협정의 핵심 내용은 '단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쌍방 합의이며, 2014년부터 의논되기 시작했으며 내용은 2018년 12월에 공개되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제도적기본협정의 핵심 사항에 관해 양 측간 상당한 이견이 있어 초안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적기본협정 결렬의 결과로 의료기기 분야 MRA 업데이트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 스위스는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자국의 의료기기 규정(MedDO) 개정 시 스위스의료당국인 Swissmedic에서 지정한 스위스 인증대행기관(SAR)을 거쳐 등록된 제품만 스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반영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전에 CE를 획득한 업체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스위스 내 공인대리인을 지정해야지만 스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단, Swissmedic은 이 규정을 '과도기적 규정(원문: transitional provision)'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양측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재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에 따른 SAR 지정 및 관련 과도 기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취리히 무역관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참고) MRA는 의료기기 외에도 기계류, 건설기자재 등 20개 품목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이번 MRA 결렬은 '의료기기'에 한정됨

** 기사 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1235

(자료: Swissmedic, Swiss medtech, 유럽위원회)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 2024.1.1. 변경사항: 공산품 관세 폐지

2024.1.1.부 공산품 관세가 전면 폐지되고, 관세 시스템이 단순화(현행 9,114 품목→ 7,511개로 축소)됨에 따라 관세가 변경된다. 이는 2021.10.1. 의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연방의회가 2022.2.2.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배경) 스위스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은 주변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고 물가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지목됐다. 무역 장벽을 줄이기 위해 연방의회는 2017.12.20.에 "수입 촉진 조치 패키지"를 채택했으며, 공산품 관세 철폐는 이 조치 패키지의 일부다.

(대상) 스위스에서 공산품은 농산물(농산물 가공품 및 동물 사료포함) 및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으로, 공산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2024.1.1.부터 스위스로 수입될 때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스위스 관세제도 일반

스위스 관세제도는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 모든 칸톤(미국의 주와 유사)에 적용되고 있다. 관세법은 1925년에 제정됐고, 2007년 5월 82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EU 관세 제도에 맞게 재정비됐다. 관세율은 EC 유럽공동체(유럽연합 EU의 전신) 및 EFTA 관세율, FTA 관세율, 개도국 특혜관세율(Allgemeinen Prferenzensystems) 등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해 총 8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앞의 6자리는 HS Code 6단위이며 끝의 두 자리는 스위스 자체 설정 2단위이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유일하게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100kg 단위로 부과)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의 목적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 소비재에 높은 과세율을 부과하여 자국의 소비재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스위스 관세법은 2007년 5월에 EU 관세법과 유사하게 개정되어 관세평가 절차가 범 유럽적으로 호환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자의 권리도 확대됐다.

스위스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2019년 2월 2일 스위스-영국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해당 협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 :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 영국과 EU 회원국의 기업들이 브렉시트에 대비 기간. 해당 기간까지 영국과 EU 간의 기존 관세동맹은 유지하나 영국은 EU 의사결정 시 참여 못함

관세율 알아보는 법

스위스 연방관세청(Eidgenössisches Finanzdepartement)에서는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주소는 'www.tares.ch'이며, 수입국별 HS코드로 수입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동 사이트는 독일,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어로 HS코드 별 관세는 검색 가능하며 이때 관련 근거 규정은 프랑스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 관세 조회 방법: www.tares.ch 접속 → 국가 및 HS코드 입력해 조회 → HS Code 세부 내역을 다시 선택해서 검색

* 상세 이용 방법에 대한 해외시장뉴스(KOTRA 취리히무역관 작성)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7523>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스위스는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송된 물품은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항구를 거쳐 주로 육로를 통해 전달되고 스위스에는 국제항구가 없다. 하지만 스위스의 가장 주요한 항구는 바젤의 라인(Rhone) 항구이다. 스위스의 가장 주요한 무역파트너는 EU 국가들인데, 라인 항구는 라인강을 이탈리아의 제노아 항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를 연결하며 스위스-EU 무역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스위스에서 라인 항구의 Basel-Kleinhuningen, Birsfelden 그리고 Muttenz port를 통해 처리되는 상품은 연간 600~700만 톤에 달한다. 이는 한해 전체 스위스 수입의 10~15%를 차지한다.

○주요 공항 및 물동량

스위스에는 취리히, 제네바 및 바젤 3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취리히공항(www.zurich-airport.com), 제네바공항(www.gva.ch/en), 바젤공항(www.euroairport.com)

2022년 취리히 공항 총 화물 운송량은 422,153톤으로 2021년 대비 7% 증가한 수치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7% 감소한 수준이다.

○유의사항

스위스는 Schengen 협약에 2008년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EU회원국이 아니므로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세관의 통관절차는 간단하다. 국경지역 혹은 국제 공항의 보세구역에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세관원이 일일이 통관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혹은 통관운송 대행업체가 대신 통관서류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 후 관세를 납부하면 통관된다. 2011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 기업이 스위스와 수출입을 하려면 스위스 세관당국에 교역 물품에 대한 보안정보(security information)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동 정책은 EU 지침으로 비EU 회원국인 스위스는 EU와 상호통관인증조약을 통해 2011년 초 발효하게 됐다. 신규 통관규정에 따르면 스위스는 물품통관에 있어 EU회원국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며 EU 회원국에서 통과한 물품은 별도 보안신고 없이 스위스에 반입된다. 반대로 스위스산 제품도 별도 보안정보 제출 없이 EU에 수출될 수 있다. 반면 물품이동에 대한 EU와의 상호조약에 따라 비EU회원국(우리나라 해당)의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보안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 EU회원국과 스위스간 항공으로 물품이 교역되는 경우 다음 서류가 사전 제출되어야 한다.

- 수입 시, 수입명세(entry summary declaration)
- 수출 시, 수출명세(exit summary declaration)

- 비 EU회원국에서 EU를 거쳐 스위스에 육로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 수입명세가 최초 도착지 세관에 사전 제출돼야 한다.

- 비 EU회원국이 최종 목적지로서 EU를 거쳐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 스위스 출발 전 수출명세가 사전 제출돼야 한다.

○기타 참고사항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입 시 세관신고는 더 이상 서류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신고양식 11.010 및 11.030호는 더 이상 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물품인데, 이때 서류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ezv.admin.ch/ezv/en/home.html>)에서 참고하면 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정식통관

정식 통관 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이때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통관물품 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상품 순수중량, 원산지가 명기된 인보이스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시용 샘플 통관

샘플 상품의 통관 절차 시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 샘플이 물품의 제 기능(예: 전화기가 전화가 되지 않을 경우)을 하지 못할 경우
- 샘플이 실제 상품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할 시, 그 가격이 100스위스 프랑 이하일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판매용 상품으로 간주되어 정식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식통관

2013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정부의 e-정부정책의 하나로 수출입 시 세관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예외로 적용되는 케이스는 이사 물품인데, 이 경우에는 서류로 세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생물 및 군수물품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서류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스위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다

*(관세청홈페이지)<https://www.ezv.admin.ch/ezv/en/home.html>

- 약식 통관 앱 - QuickZoll: 여행객이 스위스에 입국 시, 개인 및 선물용 또는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통관을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스위스 관세청 제공)이다. 해당 앱을 통해 물품 신고 및 관세 지불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물품 검사 중 유의사항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대부분이지만,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추후에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입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강제 반송시킨다. (예: 식품, 의약품, 보호종 동물, 무기류)

◦그 외의 기타 통관 시 참고사항

서류 혹은 정보 누락 시 통관이 거절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통관 당시 현장 샘플링 검사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예: 여름철 냉동식품 등) 예외적으로 최종 배송지에서 샘플링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증 수출/수입자(Zugelassene Versender/ Empfaenger)

인증 수출/수입자(Zugelassene Versender/Empfaenger) 제도는 수출, 수입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인증 수출/수입자는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세관의 전자 통관업무 시스템 'e-dec'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세관 또한 인원 부족 및 점검시간 지연으로 인한 화물 운송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인증 수출/수입자 제도 신청을 희망할 경우, 각 지역 세관에 개별 연락을 해야 한다.

(세관 연락처) <https://www.bazg.admin.ch/bazg/en/home/the-focbs/contact.html>

(내용참조) <https://www.ezv.admin.ch/ezv/en/home/documentation/regulations.html>

한국에는 보세운송제도(Bonded transportation)라고 하여,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수입물품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서울의 공장 내에 있는 자가 장치장에 보세 운송하여 서울세관에서 통관하면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통관을 위하여 서울과 부산을 왕래할 필요도 없어 경제적이다.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는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신고방법을 보세운송 신고와 보세운송 승인 신청으로 이원화하였다.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Kuehne and Nagel International AG

주소	Feldeggstrasse 5, 8152 Glattbrugg
전화번호	+41-44-866-8100
이메일	headoffice@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s://ch.kuehne-nagel.com/en_gb

◦ Panalpina Welttransport (Holding) AG

주소	Eichstrasse 50, 8152 Glattburg
전화번호	+41-44-829-1111
이메일	info.glattbrugg@ch.dsv.com
홈페이지	http://www.panalpina.com/www/global/en/home.html

◦ Gondrand AG

주소	Uferstrasse 70, 4019 Basel
전화번호	+41-61-285-3000
이메일	weil@ntggondrand.com
홈페이지	http://www.gondrand.ch/

◦ M+R Spedag Gruppe

주소	Kriegackerstrasse 91, 4132 Muttens BL
전화번호	+41-58-677-7777
이메일	info@mrspedag.com

홈페이지

<http://www.mrspedag.com/en/en-home/>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개요 및 현황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보험/펀드 회사, 통신업체, 호텔 및 요식업, 의사, 약사, 변호사, 와인 도소매, 용역 회사, 카지노/무기 취급업체 등은 관할 칸톤 경제부서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은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지 외국인의 투자 자체를 규제코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2020년 스위스 의회가 "투자 규제를 통한 스위스 경제 보호" 발의안을 채택하면서 2022년 5월 연방의회가 투자 심사 법안을 협의하기 시작, 2022년 9월 협의회가 종료되었으며 현재까지 결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 몇년간 신흥 경제 강국들의 스위스 직접 투자 사례가 증가하면서 스위스 내 일자리와 노하우가 사라지거나 공공질서 및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회사 설립

주식회사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1주의 액면가는 이론상으로 최소 0.1스위스 프랑도 가능하다. 유한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전액 즉시 납부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1명의 이사가 스위스에 상시 체류해야 하며 스위스 국적자 일 필요는 없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에 설립자의 성(姓)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 설립 시기는 경제 활동을 개시한 때부터 시작되며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보장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료: 스위스 연방경제청, 스위스중소기업포털)

투자인센티브

스위스 칸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Anreize)로 칸톤 조세 감면(Steuerfreijahre)이 존재한다. 기업은 최대 10년 동안 평균 10% 미만의 법인세를 경감받는다. 이미 스위스에 진출하였고 현재 사업방향을 완전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칸톤 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 경제에 기여하고 특정 수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각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만을 위한 별도 혜택은 없다. 일반적으로 각 칸톤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이 상이하다.

○R&D 사업 세제 지원

2019년 5월 19일 실시된 세법 개정과 AHV (노령 유족 연금) 제정 관련 국민투표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세율 경감*이 결정되어, 2020년부터 R&D 계열 기술 개발 기업의 스위스 진출이 용이해졌다. 또한 R&D 추가 소득공제는 스위스에서 발생한 적격증빙의 최대 150%를 한도로 소득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관련 세율 경감*: R&D 계열 기술사를 위해 특허권 및 지적 재산권으로 인한 소득의 법인세 최대 90%를 면제

○법인세

스위스법인세율은 중앙값 약 13.49%(9.41~17.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0년 1월 세법 개정 시 △해외 기업 세금 혜택 제도 폐지, △특허 박스 (Patent Box), △R&D 추가 소득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스위스의 법인세는 연방세, 칸톤세 및 지방세가 합쳐져 부과되는데, 연방세율은 8.5%의 고정세율이다. 각 칸톤은 각기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

* 2023년 주요 칸톤별 법인세율 현황(스위스 노동조합연합 예상치): 유라 17.42%(최고), 베른 16.01%, 취리히 15.74%, 루체른

10.31%, 바젤시 9.94%, 추크 9.55%, 니드발덴 9.41%(최저) 등

제한 및 금지(업종)

금지 무기산업에 대한 간접 투자 금지 : 2013년에 도입되었으나, 적용사례가 없고 피해 가기 쉬워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위스에는 연방 국가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특별경제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단지

◦ Industrial Park Vial, Domat/EMS

규모	215,000m ²
위치	Canton Graubunden, Domat/Ems 일대
임차료	미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Amt fuer Wirtschaft und Tourismus Graubunden - 전화: +41 81 257 23 42 - 이메일: info@awt.gr.ch

◦ Tardisland

규모	330,286m ²
위치	Canton Graubunden, Landquart 일대
임차료	미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Amt fuer Wirtschaft und Tourismus Graubunden - 전화: +41 81 257 23 42 - 이메일: info@awt.gr.ch

◦ Innovation park Zurich

규모	380,000m ²
위치	Canton Zurich, Zurich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iftung Innovationpark Zuerich - 전화: +41 43 259 49 10 - 이메일: zurich@switzerland-innovation.com
------------	---

○ Technologiecluster Zug

규모	80,000m2
위치	Canton Zug, Zug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Zug Immobilien AG - 전화: +41 58 768 60 20 - 이메일: info@technologiecluster-zug.ch

○ Infrapark Baselland

규모	370,000m2
위치	Canton Basel-Landschaft, Muttenz 일대
임차료	미 공시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raparkt Baselland AG - 전화: +41 61 469 59 99 - 이메일: info@infrapark-baselland.com

<자료원 : 칸톤 및 기업 홈페이지 통합>

주요 지역별 여건

○ 취리히(Zurich)

스위스 최대의 도시로 경제수도로 꼽히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금융 허브이다. Zurich Insurance, UBS, Credit Suisse, Swiss Re, Chubb 등의 포춘 500 금융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금융 및 보험업에서 연간 부가가치 약 250억 스위스 프랑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다국적 엔지니어링기업 ABB, HR 솔루션 기업 ADECCO 등이 자리한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이다.

○ 제네바(Geneva)

스위스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제네바에는 UN 제네바 사무국, 세계무역기구(WTO), 유엔난민기구(UHCR)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밀집하여 있다. 또한, 제네바는 프라이빗 बैं킹을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달했다. 이 밖에도, 유럽 3대 모터쇼로 손꼽히는 제네바 모터쇼를 개최하고 자동차, 운송, 숙박업과 정보 통신 산업 분야에서 연간 약 140억 스위스 프랑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베른(Bern)

스위스의 행정 수도인 동시에 광업, 제조/건설업이 발달해있다. 또한 칸톤은 최근 베른을 교육, 의료 기술, ICT 및 에너지 기술 부문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식 및 기술이전(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KT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베른에는 세계적인 시계제조사인 OMEGA, Swatch Group 등을 중심으로 정밀기계/시계 부품 제조사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산업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다.

○ 보(Vaud)

세계 최대 식품회사 네슬레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 밖에도 취리히 연방공대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공대로 손꼽히는 로잔연방공대가 자리 잡고 있어 우수 인재 채용에 용이하다. 칸톤의 주요 산업으로는 스포츠,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

◦ **바젤(Basel)**

바이오 제약/화학 산업이 발달한 바젤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 로슈, 론자 및 화학기업 클라리안트, 신겐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국경을 접하고 있어 운송업이 발달했다.

◦ **추크(Zug)**

인구 약 12만 명의 작은 도시 추크는 경쟁력 있는 법인세 등을 이유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지주사(Holding companies)를 유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약 600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추크의 크립토밸리에 자리잡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국제 투자는 스위스 경제 성장에 핵심 요소로, 국내 투자, 과세, 일부 국가에 대한 개발 원조와 함께 국제 투자는 UN 2030 의제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스위스 기반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외국으로 자본 수출을 해 왔으며, 특히 직접 투자 형태가 두드러졌다. IMF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1,548억 달러에 달하는 스위스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자본 수출국이며, 동시에 스위스는 해외로부터 약 1,208억 달러를 유치하며 자본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했다.

스위스 연방경제청(SECO)은 투자에 관한 국제법 분야, 특히 양자 간 투자 보호 협정(BIT)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수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스위스의 해외 직접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부문과 관련하여 SECO는 (직접) 투자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율을 협상하여 스위스 기업이 수혜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 국제법 조항이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ECO는 투자 정책 및 투자법을 다루는 국제기구(예: OECD, UNCTAD, UNCITRAL 등)에서 스위스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스위스 투자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료: 스위스 연방경제청, IMF)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021년 해외 투자자들은 스위스 기업에서 상당 자금을 회수했으며 대다수는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대부분의 자금 회수는 금융 및 지주회사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제외한 산업군에서는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는 주로 무역 부문 기업(약 50억 스위스프랑)에서 발생했으며, 산업 기업에도 외국 자본 약 40억 스위스프랑이 투자되었다. 특히 화학 및 플라스틱, 금속 및 기계 산업 그룹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외국 모회사는 주로 유럽 소재 중간 회사를 통해 스위스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인데, 따라서 2021년 자금 회수는 주로 이러한 유럽 소재지의 직접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특히 투자 회수액이 컸다. 직접 투자 순유입이 있었던 국가는 소수 지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320억 스위스프랑)의 투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입은 앞서 언급한 투자 철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는데, 미국 모회사가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유럽에 있는 중간 기업을 청산하고 미국 투자자로 대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 독일(50억 스위스프랑), 프랑스(30억 스위스프랑), 일본(20억 스위스프랑)으로부터 신규 투자가 유입되었다.

(자료원: 스위스국립은행 SNB)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101148	-83217.6	-50251.7	-88169.3	13311.3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해외 자회사에서 1,10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다(2020년 250억 스위스프랑, 2019년 500억 스위스프랑 회수). 서비스 부문 투자 철회는 1,290억 스위스프랑에 달했으며, 특히 금융 및 지주회사가 주로 투자를 철회했다. 그룹 구조조정과 해외 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해 자기자본에서 대규모 자금이 회수되었다. 금융 및 지주 회사 외에 운송 및 통신 산업 그룹에서도 투자 회수가 두드러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부문은 직접 투자를 180억 스위스프랑 늘렸다.

스위스 기업들은 키프로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의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회수를 단행했으며, 금융 및 지주회사의 구조조정이 투자 철회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스위스 직접 투자자가 회수한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한 유럽 국가는 러시아(50억 스위스프랑)와 독일(40억 스위스프랑) 등 일부 국가에 불과했다. 유럽 이외의 지역이 스위스 직접 투자 순유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시아(140억 스위스프랑)에 가장 많이 투자했으며, 주요 국가로는 아랍에미리트(60억 스위스프랑), 인도(50억 스위스프랑), 중국 및 일본(각 30억 스위스프랑) 등이 있다.

(자료원: 스위스국립은행 SNB)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8	2019	2020	2021	2022
65058	-47404.1	-40042	-71480.7	-23025.2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스위스 경제청(SECO)이 발간하는 국가별 경제 정보 최신 자료(2022년 8월)에 따르면 한국 기업 투자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위스 투자는 미미한 편이다. 그 외 기업별 구체적 투자 통계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 원문 보고서 참고

:

https://www.seco.admin.ch/dam/seco/fr/dokumente/Aussenwirtschaft/Wirtschaftsbeziehungen/L%C3%A4nderinformationen/Asien_Ozeanien/seco-fiche_suedkorea.pdf.download.pdf/KR%20Wirtschaftsfiche%20Internet%202022.pdf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8	5	54,419	8	54,440
2022	17	6	124,023	16	123,805
2023	5	0	7,510	3	7,25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2023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에 7백만달러가 투자되고 도소매업 및 제조업 투자액은 2022년 대비 감소했다. 소규모의 스위스 시장, 높은 물가수준, 非(EU) 회원국 지위, 언어적 장벽 등에 기인하여 소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4	2	7,686	4	7,708

정보통신업	1	1	109	1	109
금융 및 보험업	1	0	46,580	1	46,580
교육 서비스업	2	2	44	2	4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2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1	613	6	613
도매 및 소매업	3	2	4,641	3	4,608
정보통신업	6	2	2,659	5	2,474
금융 및 보험업	1	0	20,716	1	20,7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95,394	1	95,39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157	1	158
도매 및 소매업	1	0	22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0	7,133	2	7,1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대한항공취리히지점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서비스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MCM Product AG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피혁제품(가방, 벨트)
모기업명	MCM

○ 엘지 전자 스위스 지점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엘지전자

○ 삼성전자 스위스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핸드폰, 노트북, TV 등
모기업명	삼성전자

○ DOOSAN ENERBILITY CO.,LTD (두산에너지빌리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지사
업종	기술 개발
취급분야	산업용 가스 터빈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 AGENCORE AG

진출연도	2017
------	------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방사능 부산물
모기업명	Agencore AG 홈페이지 : http://www.agencore.ch/index_kr.html

○ 현대일렉트릭 R&D 센터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기술 개발
취급분야	변압기/고압 차단기
모기업명	현대일렉트릭

○ EMOJI GAMES GMBH (이모지게임스)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IT
취급분야	게임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
모기업명	이모지게임즈유한책임회사

○ NOUL GMBH (노을)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취급분야	(혈액진단제조)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
모기업명	(주)노을

○ Korean Reinsurance Switzerland AG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재 보험업
취급분야	손해보험재보험, 생명보험재보험

모기업명	코리안리 재보험
------	----------

○ HYUNDAI HYDROGEN MOBILITY AG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수소차량
취급분야	운수 및 창고업 (수소차량판매법인)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영어권의 'Corporation'에 해당되며 스위스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띈다.

*아래 [회사유형] 내용 참고

지사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아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진출 형태는 주식회사(AG)나 유한책임회사(GmbH)형태를 이룬다. 설립 시 최소 자본금 요구되지 않고 명칭은 본사의 이름과 지명이 나와야 한다.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스위스 프랑 이상이다.

연락사무소

스위스는 별도로 연락사무소 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투자위험도 스위스의 투자진출 형태는 신규 법인 설립, 기존 주식 취득, 합작법인 설립, 기술제휴 및 지사 설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AG) 혹은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이다. 스위스 법상 외국인의 회사 설립을 제한하는 형태는 없기에 외국인에게만 어려운 기업/투자 형태는 없다.</p> <p>○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법인: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설립 절차(한국 기업이 선호하는 진출형태) 영어권의 ‘Corporation’에 해당되며 스위스에서 가장 흔한 법인형태 중 하나로서 법정 자본금은 10만 스위스프랑이며 최소 5만 스위스프랑 이상 혹은 주당 최소 20% 이상 납입돼야 한다. 설립 주주는 적어도 3인이어야 하는데, 개인, 법인, 재단 등 모두 가능하며, 주주(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중 최소 1명은 스위스 거주자(국적불문)여야 한다. 실제로는 1인 주주회사도 있으나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회사 명칭은 자유로이 선택 가능하나 주식회사를 나타내는 약칭 AG를 덧붙여야 한다. 회사 운영기구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있으며, 자산총액 2천만 스위스프랑, 매출액 4천만 스위스프랑, 250명 이상 고용 기업은 매년 정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규직원 10명 미만인 소기업인 경우 약식 감사가 가능하다. 주로 대규모 영업활동에 적합하며, 설립과 동시에 장부기장의 의무를 지닌다. - 지사 및 연락사무소 : 외국 회사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으며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에서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은 본사이름과 같아야 하고, 지사 소재지나 지사임을 뜻하는 표현을 덧붙여야 하며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 스위스프랑 이상이다. - 인수합병(M&A) : 외국 회사들이 스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지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 스위스 상법에서는 지사를 법인과 구분하지 않으며 허가, 등기, 과세, 회계에 이르는 모든 사항에서 법인에서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소자본금은 없으며, 회사 명칭은 본사이름과 같아야 하고, 지사 소재지나 지사임을 뜻하는 표현을 덧붙여야 하며 설립 컨설팅 비용은 최소 1,000 스위스프랑 이상이다. - 그 외 : 그 외 Limited Partnership for Collective Investment(약자: LLP), Sole Proprietorship, General Partnership, Ordinary Partnership 등의 투자진출형태가 있다. LLP의 경우 자격이 있는 투자가 들만 설립할 수 있는 리스크 캐피탈 투자에 사용되는 회사 형태이다.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형태로, 소규모 사업에 적절한 회사구조이다. General Partnership은 한 회사를 2명 이상의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형태이다. 이 밖에 재단 설립도 고려할 수 있는데, 재단은 보통 문화적/이념적인 목적을 띠며, 가문 재단(family office), 종교 재단, 연금 재단 등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나, 재단 설립 허가는 연방재단 감사회(Federal Supervisory Board for Foundations)에서 결정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칸톤 세관에 세금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p>○분쟁해결 스위스 내 기업간 분쟁은 스위스 내 바젤, 제네바, 로잔, 루가노, 뇌샤텔, 취리히 상공 회의소에서 분쟁을 중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해당 상공회의소에 분쟁해결 절차를 접수시키면(접수비용 300 스위스 프랑)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다. 자세한 사항은 www.swissarbitration.org 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기존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였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했다. 2008년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위해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로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결기관을 담당한다.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10만 스위스 프랑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설립 소요 기간은 약 6주이며,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예비심사, 회사명 등록 및 승인
- ② 필요 서류 준비: 기업 현장 및 회사 정관, 법령, 신청서 등
- ③ 지정 은행에 자본금 예치(예치자 신원확인 및 스위스 현지 파트너 추천서 제출 필요)
- ④ 기업 현장 또는 회사 정관 설립

- ⑤ 칸톤 정부 공식 공표
- ⑥ 상업등기소, 토지등기소 정식 등록
- ⑦ 과세 대상 기업 등록

설립 절차 중 예상 소요비용은 일반적인 방법(컨설팅회사의 자문)으로 진행할 경우, 약 7000~9000스위스 프랑, 전자등록으로 할 경우 1,950~2,450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스위스 내 지역별 주식회사를 뜻하는 언어가 다르다(독일어 : AG(Aktiengesellschaft), 불어 : SA(Société anonyme), 이태리어 : S.p.A(Società per Azioni))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회사 파산 시, 개인 자산으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며 회사 주식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닌 장점이 있다. 2인 이상으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 동업자는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조건 내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설립 시에는 최소 1인의 등기 이사가 스위스에 거주해야 한다.

2008년 1월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기존 설립조건 중(최소 인원 2인 및 최대 자본금 2백만 프랑 제한 및 최소자본금 2만 프랑) 최소 인원 및 최대 자본금 조건이 폐지되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6,000~8,000, 전자등록 시 1,800~2,150 스위스 프랑이다. 지역별 유한책임회사를 뜻하는 언어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독일어 : GmbH(Gesellschaft mit beschrnkter Haftung), 불어 : Sarl(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이태리어- S.r.l(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들은 경우 보통 무역, 제조 또는 상업 분야에 종사하며 법적 성격은 없다. 일반적으로 젊은 기업가들이 개인사업자 방식을 택한다. 누구나 1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고,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으나, 사업가는 무한책임으로 개인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화가나 미용사 같은 예술 계통의 업자들이 많이 이 형식을 사용한다.

EU/EFTA 외 제 3국 국민의 경우, 장기체류 비자(C)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스위스인과 혼인한 경우에만 한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이름은 사업자의 본인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으로, 사업 목적과 회사명을 상업등기소와 토지등기소에 등록하고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에 수입이 10만 스위스 프랑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예상 소요비용은 상업등기소 등록 수수료 120 스위스 프랑을 포함, 일반적으로 약 1,120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지역별 명칭은 독일어 'Einzelunternehmen', 불어'L'entreprise individuelle', 이탈리아어 'Ditta individuale'이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o Loyens &Loeff

전화번호	+41 43 434 67 10
------	------------------

주소	Alfred-Escher-Strasse 50
홈페이지	https://www.loyensloeff.com
이메일	beat.baumgartner@loyensloeff.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리아 데스크 운영 중

◦ Wicki Parnters

전화번호	+41 43 322 1500
주소	Stockerstrasse 44, 8002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wickipartners.ch/de/
이메일	contact@wickipartne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회사법 전문

◦ Buergi Naegeli Rechtsanwaelte

전화번호	+41 44 268 4050
주소	Grossmuensterplatz 9, 800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bnlawyers.ch/
이메일	info@bnlawye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MME

전화번호	+41 44 254 9966
주소	Schuetzengasse 1, 8021 Zue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mme.ch/
이메일	office@mme.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회사법, ICO 전문

○ Vischer

전화번호	+41 44 254 3400
주소	Schuetzengasse 1, 802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vischer.com/home/
이메일	info@visch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한국 회사의 스위스 투자진출 지원경험: 있음(설립대행)

○ Boston Consulting Group

전화번호	+41 44 388 8666
주소	Muenstergasse 2, 8001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bcg.com/offices/zurich/default.aspx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KPMG AG

전화번호	+41 58 249 3131
주소	Badenerstrasse 172, CH-8004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ch/en/home.html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ICO 전문

○ ERNST and YOUNG AG

전화번호	+41 58 286 3111
주소	Maagplatz 1, 8005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gl
이메일	info@bcg.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국제조세 전문

◦ Swiss Korean Blockchain Advisors

전화번호	+41 76 523 71 72
주소	Dammstrasse 16, 6300 Zug,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skbadvisors.ch/
이메일	info@SKBadvisor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ICO 전문

◦ Amicorp Switzerland AG

전화번호	+41 44 200 3241
주소	Mühlebachstrasse 54, 8008, Zurich,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www.amicorp.com/
이메일	Ju.Lee@amicor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전문

◦ STARTUPS.CH AG

전화번호	+41 52 269 30 80
주소	Lagerhausstrasse 18, 8400, Winterthur,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s://startups.ch/
이메일	info@startups.ch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인 설립 대행 전문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스위스 프랑(CHF)은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2015년 1월 15일부로 스위스 국립은행이 유로화 대비 스위스프랑 환율 하한선을 두는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면서 급격히 평가 절상됐다. 또한, 2011년 이래로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채무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위스 프랑의 미 달러 및 유로 대비 강세가 계속됐으나, 2018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실물지표 개선 추세, 유로존 경기회복,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 그동안의 스위스 국립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스위스 프랑 약세가 지속되었다.

유로화 대비 스위스 프랑 환율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 4월 20일에는 1.2006까지 떨어졌다. 이는 스위스 국립은행이 유로당 1.20스위스 프랑으로 설정해 두었던 환율 하한선을 2015년 1월 철폐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자 각 기구들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예 : OECD, -4.2%)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 통화로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CHF)의 수요가 증가하여 프랑화 가치가 상승했다. 그 결과 2022년 스위스 프랑은 유로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많은 통화가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폭락하는 동안 스위스 프랑은 유럽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스위스 프랑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 통화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막대한 양의 금, 채권, 금융 자산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2023년 4월 18일 기준 현재 유로당 0.98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고 있으며, 달러당 0.9 스위스 프랑을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화 보유액이 큰 편으로, 2022년 말(2023년 4월 기준 최신자료) 외화 보유액은 약 8,530억 스위스 프랑(약 9,520억 달러)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집계된다.

외환 규제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매각·송금을 규제하지 않아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및 매각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만 대외 경제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대해서 스위스 국립은행이 다양한 금융통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 국립은행은 국제외환 시장에서의 수요급증에 따른 스위스 프랑 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1년 9월 6일부터 1유로당 1.2 스위스 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유지하는 제도(최저 환율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15일, 연방중앙은행은 유로화 대비 환율 하한제를 폐지하여 외환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급격히 평가 절상된 바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9스위스 프랑(2023년 4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964.16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223.2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23.6
비고	<p>○지역별, 업종별 초임 수준 상이하며 상기 정보는 대졸사무직의 경우 칸톤 취리히, 일반 사무 및 비서직, 주 40시간 근무, 남녀 평균 임금 중간값이며, 고졸생산직의 경우 칸톤 취리히, 생산직, 주40시간 근무, 남녀 평균 임금 중간값이다.</p> <p>○취리히는 스위스 내 임금 수준이 높은 칸톤에 속하며,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은 스위스 중앙 지방 칸톤들의 경우(루체른, 우리, 슈비츠, 오발덴 등) 동일한 조건 근무자의 초임 중간값은 대졸사무직의 경우 6671.84, 고졸생산직의 경우 5920.88달러 수준이다.</p> <p>○최저임금의 경우 연방 정부 수준의 규정은 없으나 일부 칸톤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중이며, 상기 정보는 해당 제도 시행 중인 다섯개 칸톤의 평균값이다.</p> <p>- 칸톤별 시간당 최저 임금: 칸톤 뉴샤텔:20.77 CHF, 칸톤 유라:20.60CHF, 칸톤 제네바: 24CHF, 칸톤 티치노:19CHF, 칸톤 바젤슈타트:21CHF</p>				

<자료원 : 스위스 연방통계청 <https://www.gate.bfs.admin.ch/salarium/public/index.html#/start> (2023년 4월 기준 2020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임), 스위스 최대 노동조합 UNIA>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스위스의 근로계약은 근무시간, 임금, 직무, 수습 기간 등을 포함하며, 직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규직의 경우 약한 달에서 석 달 사이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으며, 계약직의 경우 수습 기간이 없다. 근로계약 형태로는 개인계약, 단체협약계약, 표준 근로계약 등이 있다.

○개별 근로계약(Einzelarbeitsvertrge)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되는 계약서를 의미하며, 기간제와 무기계약으로 나뉜다.

○단체협약계약(Gemainsam Arbeitsvertrge)

고용주와 직원조합/노동조합에 의해 맺어진 계약서로,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양측에서 동의한 최소조건에 근거한 계약서로, 최소 임금 등을 포함한다.

○표준 근로계약(Normalarbeitsvertrge)

단체협약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직군의 경우, 스위스 연방 혹은 각 칸톤에서 규정한 표준 근로 계약을 따른다. 규정 내용에서 근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만 변경 후 계약이 가능하며, 근무 시간, 휴가, 사직 통보 기간 등의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각 칸톤은 농업 등의 산업 종사자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게 되어있다.

(자료: 스위스 정부기관 정보포탈 (ch.ch))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2021년 스위스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16분이었다. 주당 노동 시간 최장 직군은 1차 산업(45시간 8분)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금융업(41시간 24분),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행정(40시간 20분) 등이 있다. 실제 주당 노동시간 최단 직군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9시간 45분이었으며 이는 해당 업종 특성상 만연한 단시간 근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법정 최대 근무시간

스위스 노동법 제9조에 따라 법정 주당 최대 근무시간(wchentliche Hchstarbeitszeit)은 분야별로 상이해 산업체 근로자와 사무직, 기술직 및 기타 직원(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직 포함은 주당 최대 45시간, 그 외 모든 피고용자(수공업자, 비숙련 노동자, 중소기업 판매직 등)는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 파트타임 근무

스위스는 노동계약이 유연하여 필요 시 일주일 5일 전일 근무(100%)가 아니라 80%(주 4일), 60%(주 3일), 40%(주 2일)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당초 계약상 근무 일수는 고용주와 직원 간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전체 노동 인구의 약 4분의 1 가량만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으나, 2022년에는 3분의 1 이상이 파트타임 근무를 했다. 특히 파트타임 근무자의 73%가 여성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육아 및 기타 가족 돌봄 등이 꼽혔다.

(자료: 스위스 연방 통계청, 노동조합 UNIA, 스위스 연방경제청)

휴가

◦ 유급휴가

모든 피고용인에게는 연간 최소 4주(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20세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5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이중 최소 2주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파트타임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 임신출산휴가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휴가와 구별되어야 하며 임신출산휴가는 유급휴가 98일(14주, 해당 기간 급여의 80%, 하루 최대 220CHF 지급)와 무급휴가 추가 2주로 구성된다. 노동자가 필요시 추가적인 2주 무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임신출산휴가를 받은 여성 노동자는 최소 9주 후에 휴가를 종료시킬 수 있으며 반드시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임신을 사유로 임신 기간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남성의 경우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이 주어지며(2021년부터 시행) 해당 기간 급여의 80%, 하루 최대 196 CHF가 지급된다. 여성 임신출산휴가와 달리 남성의 휴가는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후 6개월 내에 14일 휴가를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 질병, 사고, 법정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 시의 급여 지불

고용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정 의무수행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의 80%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보험(BUV)에 들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한다.

◦ 기타 휴일

연방 정부 수준의 공휴일은 8월 1일 독립기념일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칸톤별로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모든 칸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휴일은 1월 1일(신년), 예수승천일(매년 날짜 상이), 12월 25일(성탄절)이며, 칸톤 취리히의 경우 그 외 1월 2일(베르히톨트슈타크), 성 금요일(매년 날짜 상이), 부활절 월요일(매년 날짜 상이), 5월 1일(노동절), 성림강림절 월요일(매년 날짜 상이), 슈테판스타크(12월 26)일이 공휴일이다.

칸톤별 공휴일은 www.feiertagskalende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용인에게 이 외에 경조사 휴가도 부여할 수 있으며, 노동법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일 수를 공고하고 있다.

(노동법에 공고한 경조사 휴가일 수)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Arbeit/Personenfreizugigkeit_Arbeitsbeziehungen/Arbeitsrecht/FAQ_zum_priva

(자료: 스위스 정부기관 정보포탈 (ch.ch))

해고

○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보 없이 계약 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통보기한이 고용계약서 혹은 단체 협약서에 명시돼 있으나, 계약이 없거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Swiss Code of Obligations에 따라서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사전통보기한이 적용된다.

-수습기간(최장 3개월) 중: 7일 전

-근무 기간 1년 차: 1개월 전

-근무 기간 2~9년 차: 2개월 전

-근무 기간 10년 차 이상: 3개월 전

○ 계약해지 사전통보기한은 그 외에 서면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도 있으며 1개월 미만의 해고 통지기간은 합의된 단체 계약서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 통보 서한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 기간 전에 계약해지 대상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한편 사전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해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피고용인의 사기행각 적발, 근무 거부, 무단결근, 지각 반복, 사업 기밀 누설 및 스파이 행위 등과 같은 상황이다. 단 실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논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연도 계약 기간 종료 후 양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근무하게 될 시,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해고 통지 시 사전 통보가 필요하며 해약통보 기간은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해약통보 기간과 동일하다.

(자료: 스위스 정부기관 정보포탈 (ch.ch))

퇴직금

○ 적법한 해고(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 기간 준수) 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스위스 퇴직금 관련 법률(Abgangsentschdigungen)에 따라 50세 이상의 고용인이 해당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 기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또는 타 부양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 퇴직금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관례가 있으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아 관례대로 근무기간에 따라 지불 시 최대 8개월분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개월~8개월분 급여 수준 지불).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 계약이 지속됐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득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 6개월분의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스위스 연방법)

기타

○ 지역별, 업종별 초임 수준 상이하며 상기 정보는 대졸사무직의 경우 칸톤 취리히, 일반 사무 및 비서직, 주40시간 근무, 남녀 평균 임금 중간값이며, 고졸생산직의 경우 칸톤 취리히, 생산직, 주40시간 근무, 남녀 평균 임금 중간값이다.

○ 취리히는 스위스 내 임금 수준이 높은 칸톤에 속하며,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은 스위스 중앙 지방 칸톤들의 경우(루체른, 우리, 슈비츠, 오발덴 등) 동일한 조건 근무자의 초임 중간값은 대졸사무직의 경우 6671.84, 고졸생산직의 경우 5920.88달러 수준이다.

○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 정부 수준의 규정은 없으나 일부 칸톤에서 최저임금제도 시행중이며, 상기 정보는 해당 제도 시행 중인 다섯개 칸톤의 평균값이다.

- 칸톤별 시간당 최저 임금: 칸톤 뉴사델:20.77 CHF, 칸톤 유라:20.60CHF, 칸톤 제네바: 24CHF, 칸톤 티치노:19CHF, 칸톤 바젤슈타트:21CHF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스위스 사회보장제도 중 특이한 점은 의료보험에 대해서 고용주 부담분이 없으며 전적으로 고용인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보험은 의무적인 기본 보험과 자발적인 추가 보험으로 구성되며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예: 비고용인)의 경우 사고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료: 스위스 연방경제청 중소기업포털)

고용보험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3주체계(삼주제도, Drei Sulen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스위스 거주인의 연금, 고용, 산재, 건강 보험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정하여 스위스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다.

○1주: AHV/IV/EO

AHV(노령 및 유족 보험)는 은퇴 후 기본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 보장을, IV(장애 보험)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소득 대체 제도(EO)는 군대, 민방위 또는 민간 복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1주에 해당하는 보험들은 스위스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성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여금의 절반은 고용주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전액을 자가 부담 해야한다. 급여 근로자의 경우 AHV/IV/EO 및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총 급여의 12.45%이며 자영업자는 소득의 9.65%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개인당 최소 퇴직 연금은 월 1,225 스위스프랑이며, 최대 연금은 2,450 스위스 프랑이다. 연금액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째, AHV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납입금에 공백이 없는 경우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 부분 연금만 받을 수 있다. 둘째, 평균 연간 소득에 따라서도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급여가 높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AHV 기여금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연금도 높아진다. 은퇴 후 최대 연금을 받으려면 연평균 소득이 최소 88,200CHF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혼인하였거나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 연금은 독신자 최대 연금의 최대 150%까지만 지급되며, 두 연금의 합이 이의 최대 금액(2023년 기준 3,675 스위스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최대 수령 금액이다. 남성은 65세부터, 여성은 64세부터 연금 지급 대상이다.

○2주: BVG

스위스 연금 제도의 두번째 축은 첫번째 축과 함께 은퇴 후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기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 17세 이상이며 1주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면서 연간 소득이 22,050CHF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기여금을 절반씩 납부하며, 경우에 따라 고용주가 절반 이상을 납부할 수도 있다. 근로자의 매월 납부액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요율이 규정되어 있다.

- 남녀 25~34세: 7%
- 남녀 35~44세: 10%
- 남녀 45~54세: 15%
- 남성 55~65세, 여성 55~64세: 18%

○3주: 개인 연금

1주, 2주를 보완하여 은퇴 후 추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자발적으로 3주를 선택할 수 있다. 제한형 연금(3a)과 비제한형 연금(3b)이 있으며, 연계형의 경우 매년 최대 금액 이하 수준(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7,056 스위스프랑, 개인사업자 35,280 스위스프랑)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인출이 가능한 대신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비연계형의 경우 매년 원하는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다. 사보험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 및 보험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보험

고용주에게 12개월 이상 고용된 피고용자는 실업급여보험(ALV)에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각각 5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영업자는 실업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 한국은 2015년부터 발효된 한국-스위스 사회보장협정으로 파견근로자 및 기업의 연금 및 고용보험료 납부 면제

(자료: 스위스 정부기관 정보포탈 (ch.ch))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상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된다. 이는 재택근무자와 견습생에도 해당된다. 실직자로 등록되어 실업 수당을 받는 경우 스위스 상해 보험 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된다. 자영업자인 경우 직접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부, 어린이, 학생, 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상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무 건강 보험(기본 보험)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적용기준

사고 보험은 사고 또는 직업병이 법에 따라 정의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주당 8시간 이상 특정 고용주에 고용된 경우, 상해 보험은 업무상 사고 및 직업병 뿐 아니라 여가 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주당 8시간 미만인 경우 상해 보험은 업무상 사고 및 질병만을 보장하되,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간주된다.

○보험혜택

- 의료 비용: 사고와 관련된 의료 비용 보상하며 개인 부담금은 없다.
- 일일 수당/급여 계속 지급: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사고 후 3일째부터 급여의 80%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상해 보험의 보상금이 적을 경우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하며, 반면 보험 혜택이 급여의 80%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급여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기타 혜택: 장애 정도가 10% 이상인 경우 장애 연금 지급,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구장애수당 지급,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록된 배우자 및 자녀에 유족 연금 지급

(자료: 스위스 정부기관 정보포탈 (ch.ch))

국민연금

고용보험 참고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스위스 조세제도는 26개 독립적인 칸톤(Kanton) 및 약 2,136개의 자치제(Gemeinde)로 구성된 스위스의 연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연방 헌법에 근거해 모든 칸톤들은 연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와 칸톤들이 합의해 조세제도의 큰 틀을 정하고 있으며, 상호 중복과세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부 조세는 독점적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일부 조세는 칸톤 등에 의해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스위스 진출 시 투자대상 칸톤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 연방세(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로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차등적용 되고 있다. 한편, 협회, 재단 및 기타 법인과 투자신탁의 경우 4.25%의 고정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스위스 내 법인(스위스 기업, 유한회사, 재단, 투자신탁 등)이며 파트너십의 경우 개별 파트너가 과세대상이 된다. 스위스 내 등록된 사무실 혹은 회사 운영장소가 있는 경우 스위스 내 상시 거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 법인소득세: 순이익의 8.5%로 고정
- 배당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steuer): 35%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7.7%(호텔업 3.7%, 생필품 2.5%)
- 인지세(Stamp duty; Stempelabgaben): 1%
- 담배세(Tabaco Excise tax; Tabaksteuer): 1개비당 11.832 센트
- 유류세(Mineral oil tax; Mineraldieselsteuer): 휘발유 리터 당 76.82 센트, 디젤 리터 당 79.57 센트, 난방유 리터 당 0.3 센트
- 자동차세(Automobile tax; Automobilsteuer): 4%
- 관세(Customs duty; Einfuhrzoll): 품목마다 다름, 우리나라와는 2006년 9월 1일부로 FTA가 발효 중이어서 많은 제품군에서 무관세(연방 관세청에서 제공한 관세 포털 링크 : https://xtares.admin.ch/tares/main/mainFormFiller.do?sessionId=sh_UnmwwkocSzuGHmnZD_6MPbbPVMtU62NhQXA7CaUPxUi7BB7bHW!1407501958)

○ 칸톤세: 칸톤별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의 조세제도와 틀이 유사하나 세율은 칸톤마다 다르다.

- 법인소득세(Gewinnsteuer/Einkommenssteuer): 2023년 주요 칸톤별 법인세율: 유라(최고, 17.42%), 베른(16.01%), 취리히(15.74%), 루체른(10.31%), 바젤시(9.94%), 추크(9.55%), 니드발덴(최저, 9.41%) 등, 현행 평균 법인세율 약 11%

- '24.1.1.부 법인세율 현행 평균 11%에서 15%로 인상 예정: 스위스는 '21년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합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23.6.18.에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대상은 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약 1조 7백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들로, 스위스 내 국내 기업 200개사, 글로벌 기업 2,000개사가 해당 세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세금 도입으로 기 진출기업이 스위스를 떠나거나 투자진출 검토단계에서 스위스를 배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으나, 반면 해당 조치로 인해 추크, 루체른 등 법인세율이 낮은 주의 투자 유인이 법인세율이 높은 여타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주 정부간 세율 인하 경쟁이 억제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예측된다.

-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 Kapitalsteuer) : 자본세는 칸톤에서만 징수하며 세율은 기업의 순 지분규모에 따라 부과되는데 통상 0.01% 가량이다.

- 개인 순 재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 Vermo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 Vermö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 및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 Grundstücksgewinnsteuer 및 Handaenderungs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 오토바이세, 애견세, 칸톤 인지세, 수력발전소세, 복권세

(자료: 스위스 국세청)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14단계 소득 분위에 따라 누진세 과세, 최저 0.44%~최고 11.5%)를, 칸톤 차원에서는 개인 소득세(칸톤별로 소득 분위 상이하며 최저 0.06%(추크)~최고 33.25%(제네바))와 재산세를 부과한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 신고로 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중 택 1해 소득세를 납부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 별 원천 징수해 조세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수입에서 사회 보장세, 의료 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칸톤마다 기혼 여부, 자녀 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스위스에서 고용되지 않은 부유한 외국인 거주자는 정액세(Lump-sum taxation) 제도가 적용되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소득금액과 상관 없이 지출금에 소득세를 부여하는 특별한 소득 과세 방법, 일종의 혜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은행 경영진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챙겨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모했으며, 억만장자들에게 면세나 다름없는 이 과세제도를 반대하는 스위스인들이 2010년 과세제도를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다. 당국은 정액세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하고 2016년 1월 1일부로 더욱 엄격하게 조치가 적용되었다.

해당 과세는 다음 단계에 걸쳐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 과세대상 소득은 스위스 내 거주지의 임차료의 7배 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 과세금액은 스위스에서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채권 등)과 같아야 한다.
- 최소 요구 과세 금액은 400,000 프랑 이상이며, 해당 기준은 칸톤에 따라 최소 요구 과세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자료: 스위스 국세청)

부가가치세

스위스의 부가가치세는 7.7%(호텔업 3.7%, 생필품 2.5%)로 독일의 19% 등 인근 국가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기존의 8%(호텔업 3.8%, 생필품 2.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연간 매출액이 10만 프랑 이하인 기업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된다. 비영리 및 문화 기관 및 업체의 경우 매출액 15만 프랑 이하는 면제된다.

2024.1.1.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 표준세율: 8.1%
- 할인율: 2.6% (식품, 의약품, 신문 및 서적에 적용)
- 숙박시설 특별세율: 3.8%

(자료: 스위스 국세청)

특별소비세

스위스의 특별소비세로는 석유류세(Mineralsteuer),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 자동차세(Auto mobilsteuer), 맥주세(Biersteuer), 담배세(Tabaksteuer),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이산화탄소세(CO2-Abgabe) 등이 있다. 석유류세(Mineralsteuer)는 제품 및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세(Lenkungsabgabe auf flüchtigen organischen Verbindungen)

페인트, 청소용 세제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적용된다. 스위스 관세청은 해당 화합물군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세금이 적용되는 화합물군을 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에 해당 제품/물질 수출 희망 시 관세청에 문의해 세금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Automobilsteuer)

수입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독일에서 자동차 구매시 통관 관련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다

링크 : [https://www.vertragshilfe.ch/autoimport-deutschland-](https://www.vertragshilfe.ch/autoimport-deutschland-schweiz/#Wie_ist_der_Ablauf_beim_Zoll_fuer_den_Autoimport)

[schweiz/#Wie_ist_der_Ablauf_beim_Zoll_fuer_den_Autoimport](https://www.vertragshilfe.ch/autoimport-deutschland-schweiz/#Wie_ist_der_Ablauf_beim_Zoll_fuer_den_Autoimport)

○맥주세

맥주의 도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10도까지는 헥토리터(100리터)당 16.88 스위스프랑, 10.1~14도까지는 헥토리터(100리터)당 25.32 스위스프랑, 14.1도부터는 헥토리터(100리터)당 33.76 스위스프랑이 적용된다.

○담배세(Tabaksteuer)

1개비당 11.832라펜(센트) 및 개피당 소매가격의 25%가 부과된다.

○이산화탄소세(CO2-Abgabe)

난방용 및 전력용으로 사용되는 유류,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8년 징수가 시작되었다.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 CO2 1톤당 120 스위스프랑으로 이를 환산하면 난방유 1리터 당 30라펜(센트) 가량이다.

(자료: 스위스 국세청)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WIPO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매년 80개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가 경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측정한 글로벌 혁신지수(GII)를 발표하는데, 스위스는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23년 4월 기준 최신 발표 자료에서 스위스는 51개 고소득 국가 중 1위, 유럽 내 조사대상 39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WIPO는 스위스가 특히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규

스위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1954), 상표법(1990), 저작권법(1992), 디자인법 (2001)을 제정하여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발명은 특허받을 수 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성 등이란 획기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특허권은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 한 언어로의 번역본을 (출원 시 혹은 기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이란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말하며,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모두 거쳐 등록되며, 등록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고, 5년 단위로 4회 갱신할 수 있다.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2)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3) 상표가 법·질서·도덕성에서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지적재산권 관련 스위스 산업

스위스 수출의 약 80%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특허 보호는 제약 및 화학 분야와 기계 산업에서 중요하며, 반면 식품 및 시계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상표 보호가 핵심적이다. EFTA의 자유무역 협정은 모든 지적 재산권, 특히 특허, 테스트 데이터 보호, 디자인, 저작권, 상표, 출처 표시, 스위스니스(Swissness)* 등의 보호 내용을 포함한다.

*스위스니스(Swissness): 스위스는 국가경쟁력 관리 차원에서 스위스 원산지임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스위스니스(Swissness) 법안을 통과시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스위스와 스위스 국기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며,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가 원산지임을 정의하는 기준은 품목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채소나 과일과 같은 식물성 제품의 경우 수확 장소가 스위스 내여야 하고, 우유는 스위스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식품의 경우 사용된 원재료 무게의 80% 이상이 스위스산이어야 하며, 계산은 해당 제품의 1년간 물동량 기준이며 실제 식품 성분 분석이 아닌 레시피를 기준으로 한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 비용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한다. 추가로, 연구개발 비용의 8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절차가 스위스에서 이뤄져야 한다(벌크 제조, 1차 용기 포장, 품질관리 작업 등).

(자료: 스위스 연방 지적 재산권 연구소(IPI),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스위스 연방경제청)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 청산관련 법

- 연방 강제집행법: 기업의 파산에 따른 회사 청산 사항은 연방 강제집행법(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에서 명시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세부 사항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18890002/index.html>

- 상업등기부규정: 파산으로 인한 청산에 따른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삭제와 관련된 사항은 상업등기부규정(Handelsregisterverordnung)에 명시되어 있다.

* 세부 사항 링크: <http://www.admin.ch/opc/de/classified-compilation/20072056/index.html>

○ 절차 : 철수 및 청산 절차는 법인 형태에 따라 상이하다.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등기부에 적절한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철수가 완료된다.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mit beschrnkter Haftung) 혹은 조합(Genossenschaft)의 철수 및 청산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청산비용은 회사의 유형, 청산 유형(파산 혹은 자발적 청산), 해당 칸톤 정책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해산의 결정(Beschluss): 회사의 해산여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의 경우 이를 단순과반 혹은 가중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해산결정 시 자본의 75%, 주주의 3/4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의 경우 투표참여자의 최소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정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 청산인 임명(Ernennung des Liquidators): 주주들은 청산인을 임명하고 회사의 청산을 진행한다. 주주들이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판사가 청산인을 임명할 수도 있다.

- 해산 신청(Anmeldung zur Aufloesung): 기업은 상업등기소에 기록 삭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서명권한이 있는 행정 위원회(Verwaltungsrat) 위원과 최고경영진 두 명이 서명해야 한다. 만약에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사임하여 서명할 사람이 없는 경우, 청산인이 해산신청서를 서명할 수 있다.

- 해산 공고(Schuldenruf): 매우 중요한 절차로 청산인이 스위스 상업청 관보(SHAB)에 기업의 해산사실을 3일 연속으로 공지해야 한다. 공지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해서 알리고, 채권자들에게 1년 이내 권리를 주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많은 채권자들은 SHAB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거나 별도 기관에 SHAB의 구독을 위탁한다.

- 회사 청산(Verwertung): 이 단계가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며, 여러 해가 소요될 수 있다. 청산인은 자산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채무 내역을 반영한 채무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청산인은 해당 기업의 현존사업을 종결시켜야만 한다. 채권 변제가 잔여 재산의 처분으로도 안될 경우 청산인은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판사는 파산을 선언한다. 채무 변제 후 자산이 남아 있을 경우 청산인은 이를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재단의 경우 자산이 남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상업등기부 기록 삭제(Loeschung aus dem Handelsregister): 세 번째 청산 공시 후 최소 1년이 지나고 청산과정이 다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회사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청산과정이 다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서의 기록삭제는 불가능하다. 상업등기부에 송부하는 모든 서한에 회사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청산과정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참고 사이트

- 상업등기부 홈페이지: <https://www.shab.ch/#!/gazette>

(자료: 스위스 연방 중소기업포털)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스위스는 인구 880만의 소규모 시장이지만 경제 강국으로서 주요 시장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안정성: 스위스는 정치적 안정성, 독립적인 사법부, 건전한 재무 환경 등으로 인해 투자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 높은 삶의 질: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은 높은 구매력으로 이어진다.
- 특화: 스위스 경제는 금융, 제약, 럭셔리 제품 등 몇몇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매우 높다.
- 수출입: 스위스는 국제 교역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는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로 인한 정치적 독립성 덕분이기도 하다.
- 이노베이션: 스위스는 세계적인 이노베이션 허브로서 연구 및 개발에 활발히 투자한다. 특히 바이오텍, 제약, 정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 높은 생산성: 스위스는 인건비가 전 세계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나, 스위스 근로자의 높은 생산성으로 이러한 비용의 일부가 상쇄되기도 한다.

(자료: SGE, 스위스 연방의회 등)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스위스의 총인구 수는 2023년 4월 연방통계청 자료 기준 8,812,728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518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업률은 2022년 2.2%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수는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예측값: 560만 명)할 것으로 보이거나 스위스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50년까지 다소 감소 (2020년: 58%, 2050년: 53.7%)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 스위스 연방통계청)

<자료원 : 스위스 연방통계청>

소비 성향

○ 고품질 및 내구성 추구: 스위스인들은 구매 시 상품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9년 스위스 에너지청의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구매 시 품질과 내구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구는 스위스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제품 구매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가격 민감성: 스위스인들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스위스 소비자 포럼이 2020년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 전 가격을 비교하고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응답자의 77%가 특정 제품 구매 전 가격을 비교한다고 답했으며, 64%는 가격 비교 앱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스위스의 높은 물가는 이러한 가격 민감성의 주요 원인이다. UBS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세계에서 살기 가장 비싼 국가로 꼽혔으며, 따라서 스위스인들은 생필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할 시 특히 가격을 중시한다.

○ 지속가능성: 스위스 소비자들은 환경을 중요시 여기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한다. 2019년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의 연

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2020년 세계야생생물기금(WWF)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지속가능한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2022년 스위스 스타트업 어워드에서 식물대체육 생산 업체, 플라스틱 용기 사용 감축을 위한 정수 약품 개발 업체 등이 수상한 것 역시 친환경적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다.

○브랜드 충성도: 스위스 소비자들은 자신이 신뢰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2019년 스위스 경제잡지 Bilanz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위스 소비자들은 그들이 신뢰하고 이미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 실제로 스위스 도매 시장은 적은 수의 대형 브랜드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 소비자들이 기성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예로, 스위스 슈퍼마켓 체인인 Coop과 Migros는 국내 식료품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스위스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컨설팅 기업 Deloitte가 2020년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온라인 구매가 가장 빈번한 상품 군은 패션 및 전자 제품이며, 1회 평균 지불 비용은 약 200스위스프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스위스 에너지청, 스위스 소비자 포럼, UBS, WWF, Bilanz, Deloitte)

한국 상품 이미지

스위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특히 미용과 전자제품, 식료품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한류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인지도가 상승한 제품으로, 일부 백화점에 한국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기는 하나 주된 판매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국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coree.ch, nisha.ch, booon.ch)들이 생겨났으며 특히 기초 스킨 케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식품: 2000년대 초부터 한국산 라면 등이 유통되었으나 일시 중지된 뒤 2013년부터 Coop, Migros 등 스위스 대형유통매장에서 한국산 라면, 김 등이 팔리고 있다. 2023년부터는 당면, 고추장, 떡볶이 등 유통되는 식품군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외 동포가 아닌 현지인이 설립한 한국식 퓨전 식당(예 : miss-miu.ch)이 생겨나는 등 한식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자제품: 삼성, LG 등 한국 전자제품 브랜드는 스위스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스위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스위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애플사(47.5%)에 이어 33.4%로 2위를 차지했으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반 분야에서 삼성과 LG 모두 점유율 기준 10위 안에 포함되었다.

(자료: Statist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우리나라 업체 제품은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지만,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가격 경쟁에서 뒤지거나 스위스의 보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응하지 못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위스 현지 업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이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기업이 스위스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결정 시, 구두 의견교환 내용 관련해서 메일로 정리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넥타이는 기업 문화에 따라 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름에 미팅할 시에는 반소매셔츠는 삼가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진행 중에 사전 정보 요구, 긴 검토 시간, 상대적으로 적은 MOQ 등이 초기 거래 시작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활절 전후로 상당수 기업이 1주일간 휴무에 들어가므로 해당 기간 중 출장 시에는 상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하계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휴가를 떠나 비즈니스 비수기이며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성탄절/신년 연휴로 역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바이어가 휴가 중에 업무대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간의 진행사항을 대부분 모르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 바이어의 휴가 및 부재 일정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스위스 기업은 우리 업체 제품소개서가 산만하고 고객의 주목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위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스위스식 3단계 제품 소개서 제작이 필요하다.

○1단계 (의사 타진용)

1단계 제품 소개서는 A4 한 장짜리가 적당하며 전체 제품을 종류별로 묶어 사진을 나열하고 특징을 설명한다. 일단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간단명료해야 한다. 한편 고객과의 첫 접촉 시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 사진을 중심으로 꾸민다. (회사 이력은 물론이고, 생산업체 일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례로 스위스 바이어들은 우리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고 생산자와 유통상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며 홈페이지가 대부분 지나치게 화려해 비교적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2단계 (관심 고객 확보용)

2단계 제품소개서는 제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 고객용으로 주로 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카탈로그와 그 형태가 일치한다. 제품 종류별로 사진을 위주로 나열하고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관심 고객을 일일이 방문해 샘플을 보여주기 어려워서 제품 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3단계 (브로슈어 및 샘플 제공)

1·2단계를 통해 고객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선택되면, 3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소개서와 샘플이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자가 기술적인 상세 부분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별로 복사용지 한 장 분량의 카탈로그가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2단계(잠재 고객 확보용) 소개서를 1단계(의사 타진용) 소개서 대신 사용하고 있어, 최초 접촉 시 비용부담이 크다. 비용절감을 위해 2단계 제품소개서의 대용으로 제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단계 제품소개서를 준비는 것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코로나19로 이후 화상상담을 통한 미팅이 늘어났다. 스위스에서는 2022년 4월 1일부 모든 규제가 완화되어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또한 불필요해졌다.

스위스인을 만날 때 그들의 성격,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주의할 점으로는 스위스인이 독일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독일인과 똑같이 대한다면 상당한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인은 독일인에 비교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므로 독일과 비교하는 일은 금물이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인 관련 유머는 삼가는 것이 좋다. 스위스인은 일반적으로 쉽게 친해지지 어렵지만, 독일 등과 비교할 시 융통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나 본국과는 억양이 달라 사투리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어를 화제로 할 시 언어의 다양성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대화 주제로서는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Pestalozzi, 세계 최고 명품시계의 산지, Made in Switzerland 로써 세계인의 간식 초콜릿, 스위스 아미 나이프(Swiss Army Knife), 로저 페더러(테니스), 알프스 산맥의 명소 체르마트, 한국에서도 유명한 제약회사 로슈나 노바티스 등을 주제로 삼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위스에서는 접대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는 비즈니스에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작은 선물(영문 한국 관광 가이드, 홍보 책자, 소형 명함함)이 미팅 시에 유용하며, 그 외는 서로의 식사문화를 존중하는 오찬 초대가 효과적이다. 만찬에는 술이 접대 될 수 있으며 근무 이후 가족과 함께하는 스위스의 분위기 때문에 저녁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굳이 저녁에 접대하려면 가급적 평일을 택해 상대방의 의중을 살핀 후 초대 희망 바이어가 이를 기꺼이 수용할 경우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초대할 수 있다. 무역관 경험으로는 스위스 바이어들이 통상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우리 업체가 접대를 받을 경우도 소규모 선물이나 오찬 접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만찬 접대 등을 희망 시 업체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표출할 수도 있다.

○참고: 가벼운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

- 윌리엄텔(빌헬름 텔)

윌리엄텔(빌헬름 텔) 14세기 초반 스위스 칸톤 우리(Uri)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영웅이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석공 명인으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지배자가 꼬투리를 잡아, 그에게 가족의 머리에 얹은 물건을 과녁으로 화살을 쏘게 했다. 활의 명인은 시련을 이겨내고 과녁을 맞혔다. 이후의 이야기지만, 명인은 첫 번째 화살이 빗나가 가족이 다칠 경우 지배자를 쏘기 위한 두 번째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훗날 그 지배자는 활의 명인이 쏜 것으로 여겨지는 의문의 화살을 맞고 최후를 맞는다. 많은 사람이 실존인물로 알고 있지만 가상인물이다. 다만 전설의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여, 그가 사과를 쏜 날짜가 1307년 11월 18일이라는 것까지 알려졌다.

- 스위스 아미 나이프(Swiss Army Knife)

본디 스위스 군용 단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빅토리눅스와 웅거사에서 제작하는 다목적 주머니칼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머리글자를 따서 SAK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큰 범주로 스위스 아미나이프는 멀티툴에 포함되는데, 자체적인 멀티툴을 제식 채용한 군대는 스위스 군 외에도 영국군, 러시아군이 있다. 다만,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대표적인 멀티툴 나이프가 되었다. 도구들의 열처리가 잘 되어있고, 도구를 고정해주는 스프링의 장력과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 마무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다. 2005년에 빅토리눅스사가 웅거를 인수했지만 웅거의 브랜드 및 제품군은 계속 유지하였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품질 관리를 위해 모든 제품이 스위스의 슈비츠(Schwyz)시에서 제조되고 있다.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Digitec

사이트 주소	www.digitec.ch
개요	2022년 매출액 기준 스위스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로, 독일어 및 프랑스어 사용 지역에서 온라인 상점과 10개의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 중이다. 현지 대형유통망 Migros의 자회사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2001년 ○ 매출액: 22억 스위스프랑(2022년 기준) ○ 고용인원: 약 1,300명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시계 및 보석류, 반려견 용품 등 생활소비재
특징	자체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 1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급업체를 선정시에 당사의 이미지에 맞는 제품만을 선별하여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실질적으로 배송은 공급업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에게 매력적인 바이어로 뽑히지 않는다.

○ Zalando

사이트 주소	zalando.ch
개요	2022년 매출액 기준 스위스 내 규모 2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연도: 2008년 (독일 기업, 스위스 지사는 2011년 설립) ○ 매출액: 10.4억 스위스프랑(2022년 기준) ○ 고용인원: 약 16,000명 (유럽 전역)
주요 판매 품목	의류, 신발, 악세사리류, 화장품 등
특징	독일에서 설립된 유럽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잘란도 그룹의 스위스 지사로,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배달 서비스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다. Zalando Lounge라는 서비스를 론칭해 가입한 고객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지속가능성 및 다양성을 브랜드의 주요 이미지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 빠른 배송등을 내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 Amazon

사이트 주소	amazon.de
개요	Amazon.de는 미국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 디지털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등을 포괄하는 테크 컴퍼니의 독일 지사로 주로 독일 고객을 타겟으로 하히잠 스위스를 비롯한 인근 국가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소비자들의 경우 스위스 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비해 제품 수령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 통관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위스에서 수급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연도: 1998년 (독일 지사 설립연도) ◦매출액: 7.25억 스위스프랑(2022년 기준) ◦고용인원: 약 20,000명 (풀타임, 시간제 근무자 포함 추측치,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음)
주요 판매 품목	도서, 전자제품, 의류, 가전제품 등
특징	광범위한 제품군, 빠르고 정확한 배송 등으로 유명하며 주문일 또는 주문 다음날 제품 수령이 가능한 빠른 배송 옵션을 제공중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할 경우 구매 상품 무료 배송이 제공된다.

◦ Brack

사이트 주소	brack.ch
개요	2022년 매출액 기준 스위스 내 4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약 4,700여개의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개인소비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연도: 1994년 ◦매출액: 4.6억 스위스프랑(2022년 기준) ◦고용인원: 약 1,250명 (모회사 Competec-Gruppe 기준, Brack 자체 고용인원은 공개되지 않음)
주요 판매 품목	IT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품, 정원용품, 유아용품, 스포츠 및 레저, 장난감, 약기 등 생활소비재
특징	스위스 자생 기업으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현지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제품과 컴퓨터 제품에 특별히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 구도에서 니시 시장을 점유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협동 로봇)

스위스 바이어 A사는 자동화 로봇 및 비전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로 글로벌 유명 로봇사 독점 스위스 독점 유통권을 가진 기업이다. 국내 기업은 로봇 회사로 스위스 시장 및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보던 중 2021년 5월 취리히 무역관 주관 [스위스 로보틱스] 사업 참가하여 바이어와 미팅을 하였다. 당시 바이어 취급 품목 중 협동 로봇군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중 마침 국내 업체 협동 로봇 공급건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이어는 코로나 영향으로 로봇 산업 수요가 크게 앞당겨졌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한국 로보틱 기술, 특히 협동 로봇과 서비스형 로봇이 유럽 시장에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이후 추가 상담 및 기술적인 논의를 거듭한 후에 2021년 11월 국내업체가 스위스 바이어를 직접 방문하여 바이어 역량 및 규모를 검증하였으며, MOU도 체결하였다. 2022년 1월 바이어로부터 초도 주문이 성사되어 앞으로 유럽 진출에 큰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사화 사업 성공사례(무선트랙터)

국내 기업은 친환경 무선 작동 트랙터를 생산하는 업체로, 해당 제품은 스위스 현지의 친환경적 기조에 부합하고 신속한 작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와인, 과일 농장 및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 능력 효율을 높인다. 2017년 지사화 가입을 하였으며 첫 수출로 12만 달러 성과를 냈으며 이어 유럽 스위스 바이어와 500만 달러 구매 계약서를 체결했다.

○GP 사업 성공사례(수소에너지저장장치 소재)

취리히 무역관은 수소 충전인프라 및 운송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소재부품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수소GP 특화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스위스 수소저장장치 개발 기업 A사로부터 소재공급 희망 수요를 발굴하였다. 수소 소재 전문 국내기업 B사를 발굴, '20년 6월 수소 GP 1차 사업 시 스위스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어 A사와 매칭된 후 '21년 수소 GP 2차 사업을 통해 단가 협의와 국내기업의 정부 과제 참여 등 2년간의 밀착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바이어 맞춤형 소재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소재 개발 완료 단계로 초도품 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연 수백만 달러 수출이 예상되며, 탈탄소 분야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공동으로 수소 저장/충전 밸류체인에 진척하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큰 사례이다.

○무역사절단 성공사례(식품)

2019년 무역사절단으로 스위스를 방문하게 된 음료 기업 O사는 2014년에도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여 여러 스위스 바이어와 상담을 하였으나 수출성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5년 만에 다시 스위스를 다시 방문하여 바이어와 상담회를 했으며 이번 상담에서는 국내기업이 자사 제품의 장점에 대한 설명보다는 바이어가 제품을 시음해보고 평가해주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다. 특히 스위스의 소규모 시장 특성상 소량 거래이면서도 독일어로 제품을 표기해야 하고 기존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 함량을 줄이는 등 번거로운 사항들을 요청하여도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줌으로써 무역사절단 참가 2개월 만에 스위스로의 첫 수출을 성공시켰다. 2014년에 참가하였을 때와는 다른 자세로 바이어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바이어와의 신뢰가 쌓였고 비록 소량이지만 바이어의 첫 샘플 오더 이후 두 번째 오더로 이어져 스위스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리히 무역관에서도 국내기업의 스위스 시장진출 확대를 위하여 지사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나. 실패사례

○수출 잠정 중단 사례(수소 연료)

취리히 무역관은 수소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연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발굴, 동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적용 분야를 광범위하게 넓혀 잠재 바이어를 조사하던 중 스위스 소재 유럽 주요 방산 기업으로부터 희망 수요를 발굴하였다. 바이어가 1차 샘플로 약 1만 유로에 달하는 제품을 주문하였으며 이후 양 사가 피드백을 교환하고 필드 테스트를 계획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되었다. 이후 테스트 재개를 계획하였으나 곧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함에 따라 방산 기업이 계획했던 미래 지향 프로젝트들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우리나라와 스위스 간에는 1979년 6월에 일반 사증 면제협정이 체결됐다. 따라서 3개월(90일) 미만 체류로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류 시 또는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스위스 연방 이민청의 거주허가, 칸톤(우리나라에 '도'에 해당) 노동청의 노동허가, 칸톤 이민청의 거주허가,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장기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체결을 하지 않았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없다. 또한 스위스는 취업비자는 없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취업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비자를 찾아 입국한 후 현지의 회사와 접촉을 해보거나 국내에서 현지의 회사에 취업한 후, 스위스에 들어오는 방법을 추천한다.

○허가의 종류

- L 허가증(Permit L) - 단기 거주 허가서로 최대 1년간 스위스에 체류할 수 있다. L 허가는 고용 계약 조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년 더 연장될 수 있지만 동일한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 B 허가증(Permit B) - 1년 동안 유효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연장할 수 있는 초기 또는 임시 거주 허가. 쿼터* 기준으로 발행되며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 B 허가의 경우 대부분 허가를 해준 Canton(미국의 주와 같은 개념) 밖으로 이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 쿼터 : 현재 EU/EFTA 외에 제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연간 8,500명에게만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 중 장기 체류증(Permit B)이 4,500명, 단기 체류증(Permit L)이 4,000명이다.
- C 허가증(Permit C) - 스위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기 허가증. 영주권으로 불린다. 미국과 캐나다인들은 5년만 거주하면 C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스위스인과 혼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 아니더라도 5년이면 C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 G 허가증(Permit G) - EU/EFTA 회원국에 거주하면서 스위스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자에게 발행해주는 허가증이다.
- F 허가증(Permit F) - 자국 귀환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국제법 의무,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실질적인 장애로 수행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해당 외국인을 추방치 않을 때 주는 임시 허가증이다.
- N 허가증(Permit N) - 스위스에 망명 신청을 한 사람에게 허가해주는 망명 허가증이다.
- Ci 허가증(Permit Ci) - L, B, C, G 허가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의 자녀(21세 미만)의 스위스 내의 취업, 구직 활동을 허락해주는 허가증이다. 21세 전에 해당 허가증을 갖고 입국하여 취업한 후, 21세 이상도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스위스의 비자 발급은 EU국가와 Non-EU국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Non-EU/EFTA국가의 인력을 고용할 경우 노동 허가서와 함께 특별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 조건은 통상적으로 기존 취업 쿼터, 학업 수준 및 경력에 달려 있으며 스위스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비자, 비즈니스 여행 혹은 방문객의 신분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방문 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이 되면, 고용주는 스위스에서 노동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당사자는 자국에서 입국비자를 신청한다. 고용주가 노동 허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아래 사항을 이민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 증명 사항

- 왜 스위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가?
- 왜 EU/EFTA 회원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가?

고용주가 non-EU/EFTA국가의 시민을 고용할 경우, 많은 변호사 비용과 함께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대부분 스위스 자국민, EU/EFTA 회원국 시민 혹은 이미 거주 허가증(Permit B 혹은 C)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를 선호하게 된다. 단, 그 분야에서 저명하거나 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여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기업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허가를 받고 배우자와 함께 스위스에 살기를 희망할 경우에 배우자는, 단기/장기 체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현지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독일어의 경우에는 A1 레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전에 이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비자 신청하기에 앞서 현지 어학원 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비자 승인을 득한 후, 1년 내 자격증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5년 혹은 10년 이상 스위스에서 거주한 사람만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스위스에 정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스위스 시민과 결혼한 경우나 당사자의 사업이 스위스에서 일자리 창출 혹은 다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비자 : EU/EFTA 국가들의 경우 쾅겐조약으로 인해 절차가 간편한 편이다. 지원자는 스위스에 도착 후 14일 안에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건강 보험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풀타임으로 공부하리라는 것과 공인된 대학교(University)나 인증된 전문대/단과대(College)에 등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Non-EU/EFTA국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자국에서 스위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출석할 학교 또는 기관의 증명서, 학비 납부 증명서 및 학업 중 지원 수단, 학생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스위스를 떠나겠다는 서약서 및 이력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스위스 당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은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언어 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면세품 보유 한도 : 개인용품으로 300스위스프랑 이내에 한국과는 달리 농산물, 식품 등도 반입이 가능하다. 항목별 무게 제한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1인 기준).

- 육류 및 육류 가공품 1kg
- 곡물/채소 20kg
- 사과/배 과일류 20kg
- 버터 1kg
- 식용유, 요리용 지방, 마가린 등 5kg
- 18도 이하 알코올 음료 5L
- 18도 초과 알코올 음료 1L
- 담배류 250 개비

* 초과 항목별 부과되는 세금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ezv.admin.ch/ezv/de/home/information-private/reisen-und-einkaufen--freimengen-und-wertfreigrenze/einfuhr-in-die-schweiz/freimengen--lebensmittel--alkohol-und-tabak.html>

(링크가 안될 경우 : Google에서 "einfuhr in die schweiz EZV" 작성 후 찾기. www.ezv.admin.ch 으로 시작하는 링크 클릭. 영어로 변경 가능)

○외화 보유 신고 : 외국인이 출·입국 시 10,000스위스프랑/10,000유로 이상 보유할 경우 자금 세탁, 테러단체 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해 스위스 관세청에 서명으로 신고하게 되며, 해당 기록은 관세청 정보 시스템에 남게 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스위스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1 (0)31 356-2444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alcheggweg 38, 3006 Bern,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h-ko/index.do
비고	현지 내 한국 홍보, 총무와 주재국과 국방외교 및 협력 지원. 여권, 비자발급 안내공휴일/긴급연락처: +41(0)79 339 581/+41(0)79 897 4086(민원 및 사건사고 담당 영사)

○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전화번호	+41-22-748-0000
주소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 Avenue de l'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20, Switzerland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ch-geneva-ko/index.do
비고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유엔구주사무소(UN, Office at Geneva) 및 여타 국제기구와 관련된 업무 담당긴급연락처: +41-79-446-1370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스위스 연방 정부(Authorities of the Swiss Confederation)

전화번호	+41 584 62 21 11
주소	Schweizerische Bundeskanzlei, Bundeshaus West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admin.ch/gov/en/start.html
비고	현지어명: Der Bundesrat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상황 파악 및 처리, 정부 정책 계획 및 지원, 연방 행정부 관리, 연방의회에 연방법 및 연방 결의 제출

○ 스위스 외교부(EDA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전화번호	+41 80 024 73 65
주소	Effingerstrasse 27,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eda.admin.ch/eda/de/home.html

비고	현지어명: Eidgenoessisches Department fuer auswaertige Angelegenheit외교를 통해 각국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이 목적. 해외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	--

○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 Federal Department of Finance)

전화번호	+41 58 464 50 94
주소	Holzikofenweg 36, 3003 Bern
홈페이지	https://www.seco.admin.ch/seco/de/home.html
비고	현지어명: Staatssekretariat fuer Wirtschaft경제 상황을 조사, 경제 정책 계획을 수립, 일자리 정책을 세우며 대한민국의 기획 재정부에 준하는 곳.

○ 스위스 무역 투자청(S-GE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전화번호	+41 44 365 51 51
주소	Stanphenbachstrasse 85, 8006 Zurich
홈페이지	https://www.s-ge.com/de
비고	스위스 경제사무국 산하의 조직으로 스위스의 무역관련 업무를 지원함.

○ 스위스 일간지(Neue Zurcher Zeitung)

전화번호	+41 44 258 11 11
주소	Falkenstrasse 11, 8021 Zurich
홈페이지	https://www.nzz.ch/
비고	업무 설명: 스위스 정치, 스포츠, 기술, 경제 관련 일간지

○ 스위스 일간지(Tages Anzeiger)

전화번호	+41 44 248 44 11
주소	Werdstrasse 21, 8021 Zurich
홈페이지	https://www.tagesanzeiger.ch/
비고	스위스 정치, 기술, 스포츠, 경제 관련 일간지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12 CHF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7.720
2	식품	비빔밥	1인분	39.16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39.16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18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7.72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1.11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620
8	의료	항생제	12정	3136.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4.93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4.93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8.96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남성)	1회	67.2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2.15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3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24.500
16	여가	담배	1갑	10.080
17	여가	소주 (한식당 기)	360ml	29.120
18	임금	보편적 최저임금	월급	4814.73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43798.47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500
21	식품	쌀	1kg	3.360
22	식품	식빵	한묶음 730g	3.690
23	식품	고기(돈우육 다짐육)	1kg	23.520
24	식품	계란	10개	5.540
25	식품	우유	1L	2.180

26	식품	식용유(해바라기씨유)	1L	6.05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300
28	주거	수도세	m ³	1.790
29	주거	가스비	1kWh	0.19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중앙값)	월	444.86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168.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84.0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	92.000
34	통신	국제전화 요금(Sunrise사, 한국과 유선 통화 기준)	분	0.780
35	통신	휴대전화 요금(Salt사, 무제한 통화, 무제한 데이터)	월	24.58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Sunrise사)	1개월	55.880
37	서비스	TV 수신료(연 1회 납부)	1개월	375.200
38	서비스	OTT 구독료(Netflix 기본요)	1개월	13.32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5.600
40	기타	국경일수(칸톤 취리히 기준)	연간	9.000

<자료원 : 중앙은행, 대형 유통망 및 기타 검색 통합>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스위스 프랑으로서 약칭은 CHF이며 1스위스 프랑은 100라펜(Rappen)이다. 지폐에는 10, 20, 50, 100, 200 및 1,000 스위스 프랑이 있으며, 주화에는 5, 10, 20 라펜 및 1/2, 1, 2, 5 스위스 프랑이 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나 유로화는 슈퍼 및 관광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된다. 그러나 거스름돈은 스위스 프랑으로 받게 되고 환율도 높지 않으므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소액은 스위스 프랑화로 사전에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방법

공항 및 기차역, 시내 중심가 등 주요 지역에 은행이 있어 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각 철도 역의 철도공사(SBB)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수수료와 환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호텔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6~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된다. 은행을 통해서 환전할 때에는 환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

금융업이 발달한 스위스답게 신용카드의 사용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작은 가게의 경우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결제 시 카드로 결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후 단말기에 직접 카드를 삽입하거나 인식시킨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후 영수증에 서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카드 뒷면 서명란에 있는 서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편이 좋다. 또한, 카드에 적혀있는 소유자 이름과 사용자 이름이 다른 경우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전반적으로 계획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가 발전한 형태를 취하므로 국내에 비해 도로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대중교통 체제가 잘 발달하여 있고 각 교통편이 시간을 잘 맞춰 오는 편이나, 교외 및 지방으로 갈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므로 자가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운전 시 출퇴근 시간인 7~8시, 17~19시에는 교통정체가 발생하며 도심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 주변의 고속도로도 막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외 시간대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운전 중에는 도로 곳곳에 속도 제한 표지판에 주의하여야 하며, 한국과 달리 내비게이션이 과속카메라를 미리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과속은 금물이다. 만약 적발될 경우 범칙금 안내 우편물이 한국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여행객의 신분이라도 현지의 교통 문화를 잘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버스

버스 및 전차는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승차 전에 티켓을 구입하며, 취리히의 경우 단기구간(출발지 및 목적지가 1존 내에 위치해야 하며, 정거장 수에 관계 없이 이동 거리 2km 미만) 편도는 2.70스위스프랑, 일반구간(1~2존, 취리히 시내 이동 시 이를 활용하면 됨) 4.40스위스 프랑, 1일 티켓은 8.80스위스 프랑 선이다. 티켓은 구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취리히 교통조합(www.zvv.ch)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동일한 티켓으로 버스와 전차, 기차, 보트 등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자동 티켓 판매대에서 구입하는 일부 티켓은 판매대에서 스탬프를 취득해야만 승·하차가 유효하다. 대중 교통수단을 탑승할 때는 특별한 검사 없이 탈 수 있어 자물에 맡기나 수시로 불시점검이 있으며, 적발 시 기차의 경우 90 스위스프랑의 벌금 및 기타 업무 비용이, 트램이나 버스의 경우 100 스위스프랑이 부과된다. 시내버스는 새벽 6시경부터 새벽 1시경까지 운행하며 새벽 시간대에는 심야버스 노선이 별도로 존재한다.

택시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 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8스위스 프랑이며, km당 3~4스위스 프랑이 추가된다. 승객 수와 소지 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돼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주요 콜택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취리히

- 회사명: Zuerich Taxi 24
- 전화번호: +41 44 321 28 28
- 홈페이지: <https://zuerich-taxi24.ch/>
- 주소: Unterfeldstrasse 15, CH-8050 Zürich

○ 바젤

- 회사명: Taxi zentrale AG
- 전화번호: +41 61 222 22 22
- 홈페이지: <https://www.taxi-zentrale.ch>
- 주소: Leimgrubenweg 16, 4053 Basel

○ 제네바

- 회사명: Taxi-phone
- 전화번호: +41 22 331 41 33
- 홈페이지: www.taxi-phone.ch
- 주소: Rue des Rois 15. 1204 Geneva

기타 교통수단

취리히 기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버스, 트램(전차), S-bahn(기차)이며 이용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시외로 이동할 경우 버스나 S-bahn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시내 이동은 버스와 트램으로 대부분 가능하다.

티켓은 정류장의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티켓 구매 시 목적지를 확인하여 구간별 티켓을 실수 없이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보트의 경우 관광상품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며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구간별 요금이 책정된다. 취리히의 경우, 유명한 관광지답게 관광버스가 운행 중이다. 중앙역에서 출발하는 시내 관광과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하는 근교관광 버스가 있다.

시내 관광버스 운행은 약 2시간 소요되며 요금은 34프랑이다.

다. 통신

핸드폰

출장 시에는 스위스 현지에서 판매 중인 선불 유심을 사는 것이 유용하다.

통화량,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차등 된 가격의 옵션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이 쉽고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장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 Swisscom, Salt 등의 휴대전화 통신사 매장에서 직접 구입 가능하며 신변 확인을 위해 여권 제시를 요구한다. 비즈니스 업무 차 스위스에 왔다면, 유심을 구매 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유심을 사는 게 유용하다. 유심을 결제 후, PIN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유심의 PIN을 기억해야 한다. 사용 시 스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 관련하여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스위스에서 유심을 구매하여 사용한 후, 유럽 내의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해외 로밍 요금이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해당 유심 카드가 사용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현지 통신회사는 대개 TV, 인터넷, 전화기가 결합된 상품을 주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통신회사로는 Swisscom, Sunrise, Salt, UPC 등이 있다. 인터넷 설치 시 통신사들은 고객들에게 대부분 인터넷+전화기+TV, 인터넷+전화기, 인터넷+TV 등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지만, 인터넷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신청하면 우편물을 통해 설치 절차를 안내하고 인터넷 모뎀 역시 우편(평균 10일 걸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와이파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공유기가 있다면 별도의 구매 없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술자의 방문을 원할 경우 미리 방문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위스 인터넷 속도는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5위(우리나라는 10위)로 꽤 빠른 편이지만, 산간 지방이 많은 국토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라. 관광명소

○ 리기산(Rigi)(Rigi)

도시명	Arth
주소	Bahnhofstrasse 7, 6354 Vitznau
운영시간	Vitznau-Rigi Kulum간 산악열차 운행시간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다른 바 , https://www.rigi.ch/en/inform/timetables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휴무일	별도 휴무일은 없으나 산악열차 운행시간을 확인 바람.
명소소개	스위스 알프스산맥 북동부, 루체른 근교에 위치한 관광명소이다.
비고	전화: +41 41 399 87 87 홈페이지: www.rigi.ch

○ UN 제네바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도시명	Geneva
주소	Palais des Nations, 1211 Geneva
운영시간	평일 10시~12시, 14시~16시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명소소개	UN의 제네바 사무소로 국제 기구가 모여있는 제네바를 대표한다.

비고	전화: +41 22 917 12 34 홈페이지: www.unog.ch
----	---

○ 융프라우(Jungfrau)(Jungfrau)

도시명	Interlaken
주소	Interlaken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 없음
휴무일	별도 운영시간 없음
명소소개	아름다운 설경으로 잘 알려진 알프스 산맥의 고봉 융프라우(4,158m)는 산악인뿐 아니라 여행자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비고	전화: +41 33 828 71 71 홈페이지: www.jungfrau.ch

○ 마테호른(Matterhorn)(Matterhorn)

도시명	Zermatt
주소	Zermatt
운영시간	별도 운영시간 없음
휴무일	별도 운영시간 없음
명소소개	높이 4,478m. 프랑스어로는 몽세르뱅(Mont Cervin), 이탈리아어로는 몬테체르비노(Mont Cervino)라 한다. 몬테로사 산맥의 주봉으로, 스위스 쪽의 등산기지 체르마트의 남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한다. 피라미드형의 특이한 산용을 가진 빙식침봉(氷蝕尖峰)으로, 평균경사 45도 안팎의 급한 암벽이 1,5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 있다. 특히 스위스 쪽의 조망이 수려하다.
비고	전화: +41 27 966 81 00 홈페이지: www.zermatt.ch/matterhorn

○ 스위스 국립 박물관(National Museum Zurich)(National Museum Zurich)

도시명	Zurich
주소	Museumstrasse 2, 8021 Zuerich
운영시간	화~일: 10~17시 목요일: 10~19시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립 박물관이다. 박물관 건물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고	전화: +41 44 218 65 11 홈페이지: www.nationalmuseum.ch

마. 식당

- 현지식당

○ 발리저 칸네(Walliser kanne)

도시명	Basel
전화번호	+41 61 261 70 17
주소	Gerbergasse 50, 4000 Basel
가격	송아지 커틀렛(1인분): 65.82달러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소개	바젤에 소재한 스위스 음식점.
비고	퐁듀, 라끌렛 등 스위스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

○ 브라제리세츠 모우레스에디(Brasserie chez moules-edy)

도시명	Bern
전화번호	+41 31 311 38 93
주소	Baerenplatz 21, 3011 Bern
가격	홍합스튜(1인분): 32.91달러
영업시간	9~24시
휴무일	크리스마스
소개	베른 소재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고	홍합스튜가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다고 평가되고 있음.

○ 레스토랑 레스 아무레스(Restaurant les amures)

도시명	Geneva
전화번호	+41 22 310 34 42
주소	Rue de soleil-levant, 1204 Geneva
가격	돼지고기 찹스테이크(1인분): 46.88달러
영업시간	월~금: 9시 30분~23시 토, 일: 11~23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제네바에 소재한 스위스 음식점
비고	퐁듀, 라끌렛 등 스위스 음식과 파스타 등의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

○ 조이크하우스켈러(Zeughauskeller)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220 15 15
주소	Bahnhofstrasse 28a, 8001 Zurich
가격	취리히 스타일 송아지 요리(1인분): 40.75달러
영업시간	11시 30분~22시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소시지, 구운감자 등을 즐길수 있는 식당.
비고	한국어 메뉴를 제공하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함.

○ 퐁듀트램(Fonduetram)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84 880 18 80
주소	Bellevueplatz, 8001 Zurich
가격	1인분: 106.05달러
영업시간	12~22시 예약제 운영, 11월 첫 금요일부터 3월 첫 토요일까지만 운영
휴무일	운영기간 외
소개	스위스의 대표음식인 퐁듀를 트램에서 시내를 구경하며 즐길 수 있는 이색 레스토랑.
비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

<자료원 : 각 음식점 홈페이지>

- 한국식당

○ 아리랑(Arirang)

도시명	Bern
전화번호	+41 31 329 29 45
주소	Hirschengraben 11, 3011 Bern
가격	소불고기와 밥(1인분): 33달러

영업시간	화~토요일 11:30 - 14:00 (마지막 주문), 17:45 - 20:30 (마지막 주문)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베른 소재의 한식당
비고	구시가지에서 1km 내에 위치

○ 서울(Seoul)

도시명	Geneva
전화번호	+41 22 732 46 05
주소	Rue de Zurich 17, 1201 Geneva
가격	소불고기(1인분): 38달러
영업시간	화~목요일: 12:00 - 14:00, 18:30 - 22:30 금요일: 12:00 - 14:00, 18:00 - 23:00 토요일: 18:00 - 23:00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소개	제네바 소재의 한식당.
비고	인덕션 그릴 가능, 채식메뉴 제공.

○ 코리아 타운(Korea Town)

도시명	Luzern
전화번호	+41 41 210 11 77
주소	Hirschmattstrasse 23, 6003 Luzern
가격	소불고기(1인분): 40.20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30~14:00, 17:30~23:00 토요일: 17:30~23: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루체른에 소재한 한식당.
비고	세트 메뉴 제공

○ 신라(Shill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431 80 80

주소	Badenerstrasse 505, 8048 Zurich
가격	꽃등심(1인분, 150g): 50.20달러
영업시간	월요일: 17:30~22:00 화~목요일: 12:00~14:00, 17:30~22:00 금요일: 12:00~14:00, 17:30~22:30 토요일: 16:00~23: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BBQ 전문 한식당.
비고	주요 메뉴 이외에 삼겹살, 소고기 등의 한국식 불판 구이도 가능함.

○ 미소가(Misog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422 99 90
주소	Drahtzugstrasse 5, 8008 Zurich
가격	김치찌개(1인분): 39.07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30~14:00, 18:00~22:30 토요일: 18:00~22:3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한식당.
비고	불고기메뉴를 쌈으로 즐길 수 있음.

○ 아카라카(Akaraka)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3 538 30 85
주소	Bäckerstrasse 30, 8004 Zürich
가격	중식 메뉴는 짬뽕, 짜장, 마파둑밥, 석식 메뉴는 육류 파인다이닝(1인분): 67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30~14:00, 18:00~23:00 토요일: 18:00~24: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취리히 소재의 한식당
비고	사장님 성악 전공해 저녁 시간 중 공연

○ 미니네 스시(Minine Sushi)

도시명	Zurich
전화번호	+41 44 260 89 29
주소	Zeltweg 12, 8032 Zürigh
가격	스시 세트(1인분): 40달러
영업시간	월~금요일: 11:30~14:00, 17: 30~22:00 토요일: 17:30~22:00
휴무일	일요일
소개	한국인이 운영하는 취리히 소재의 일식당
비고	초밥, 돈까스 등 다양한 일식 메뉴를 즐길 수 있음

<자료원 : 각 식당 홈페이지 통합>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바젤 스파렌토르 호텔(Hotel Spalentor Basel)

도시명	Basel
주소	Schoenneinstrasse 1, 4056 Basel
전화번호	+41 61 539 19 26
홈페이지	https://hotelspalentor.ch/
숙박료	스탠다드 더블룸 기준: 139달러
소개	바젤대학 주변 소재, 대중교통 접근 용이
비고	4성급

○ 이스트웨스트 호텔(Eastwest Hote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des paquis 6, 1201 Geneva
전화번호	+41 22 539 16 97
홈페이지	https://www.eastwesthotel.ch/en/
숙박료	싱글룸: 307달러

소개	제네바 중앙역에서 도보 이동 가능, 호수 인접
비고	4성급

○ 크라운 플라자(Crown plaza)

도시명	Zurich
주소	Badenstrasse 420, 8040 Zurich
전화번호	+41 44 404 44 44
홈페이지	https://cpzurich.ch/
숙박료	스탠다드룸: 234달러
소개	취리히 레치그룬드 주변 소재, 수영장, 실내 사우나시설 제공
비고	4성급

<자료원 :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베른 백패커 호텔 글로케(Bern Backpackers Hotel Glocke)

도시명	Bern
주소	Rathausgasse 75, 3011 Bern
전화번호	+41 31 311 37 71
홈페이지	http://www.bernbackpackers.com/
숙박료	독실: 85달러
소개	베른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구시가지 내 소재, 중앙역에서 도보 10분

○ 제네바 호스텔(Geneve Hoste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rothschild 28, 1202 Geneva
전화번호	+41 22 732 62 60
홈페이지	https://genevahostel.ch/en/
숙박료	독실: 126달러
소개	제네바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제네바 호수 도보 5분, 공용 주방 있음

○ 게스트하우스 Zum Guten Glueck(Gasthaus zum Guten Glueck)

도시명	Zurich
주소	Stationsstrasse 7, 8003 Zurich
전화번호	+41 43 540 72 99
홈페이지	https://www.zumgutenglueck.ch/de/
숙박료	독실: 100달러
소개	취리히 소재의 게스트하우스
비고	기차역 인근 소재하여 중앙역 및 시내 접근 용이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사. 치안

치안상황

2022.5.2 (월)부터 스위스 입국에 관한 코로나19 제한사항 일체가 해제되었다.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은 안정된 정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치안 상태는 인근 유럽 국가들보다도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공항, 기차역 등 군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유럽 국가 또는 주변국으로부터의 원정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쪽 프랑스어권 일부는 (제네바, 로잔 일부 구역) 현지 거주민들도 저녁에는 가능한 외출을 삼갈 정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보행 안전 수준이 높은 편이나 트램, 버스, 자전거 등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전하는 경우 트램과 버스의 전용차선, 회전교차로 등에 유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해주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분쟁 없이 서로 연락 정보를 교환한 후 보험사를 통해 사후 처리하는 편이고 현장에서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거나 당사자 간 긴 대화는 나누지 않는 편이다.

○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긴급 단수여권이 발급 가능하며 여권용 사진 2매와 수수료 15스위스 프랑이 필요하다.

- 대사관 연락처: +41 31 356 24 44 월~금요일 9시~12시, 14시~17시

- 긴급 연락처: +41 79 897 40 86

스위스 열차 내 귀중품 도난 혹은 분실 시 SBB철도청에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 인터넷 분실신고(무료): <https://www.sbb.ch/en/help-and-contact/lost-found-office/submit-loss-report.html>

- 현장 분실신고(유료): SBB 기차역 내 창구에서 분실신고 : 프랑 15

- SBB 전화 분실신고: +41) 0900 300 300 프랑 1.19/분

○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18

- 범죄 신고: 117

- 응급 의료: 144

- 구조 헬기: 141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 가능 물량이 넉넉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이며 임대인의 입주자 선별 과정이 까다로워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장기 투숙 레지던스 호텔 등 임시숙소를 미리 마련하여 임차주택을 물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특정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대, 입주 가능 시기를 검색하여 관심 주택을 정하고 임대인이 정한 날짜에 해당 주택을 방문해 임차 신청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 www.immostreet.ch
- www.homegate.ch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양한 서류(자기소개서, 근무지에 대한 증명, 소득 증명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집의 크기는 평방미터나 방의 개수로 표시하며 이 경우 거실도 방 하나로 계산하고 부엌은 0.5로 계산한다. (2.5의 경우 거실 1, 침실1, 부엌 0.5)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는 3개월 전 서면통보 조건이나, 특정 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예:3월, 6월, 9월 등)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전세 개념은 없고 주로 월세 형태이며, 보증금 개념으로 2~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차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기 세척기와 냉장고는 built-in이고 세탁기를 제공한다. 보통 세탁기는 집 안에 있지 않고 지하 등 별도 공간에 위치하며, 경우에 따라 1개 건물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4~6세대) 공용 세탁기, 건조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차량 주차장은 같은 건물 내라도 별도 임차 계약을 해야 한다.

상기 원상복구 비용이 종종 문제가 되므로, 계약 전 집안의 파손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파손이 발생한 경우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전화

스위스콤(Swisscom), 솔트(Salt), 선라이즈(Sunrise) 매장 혹은 케이블콤(Cablecom) 홈페이지에서 유선 및 무선전화 개통을 신청할 수 있다. 무선전화 가설에는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익스프레스(Express)로 신청하면 신청 1일 안에 통화가 가능하다. 단 익스프레스(Express)신청 시에는 추가 가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o Swisscom: www.swisscom.ch
- o Salt: www.salt.ch
- o Sunrise: www.sunrise.ch
- o UPC Cablecom: www.upc-cablecom.ch

전압/플러그

230V, 50Hz를 사용하지만, 플러그 모양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플러그는 통용 J 타입으로 동그란 구멍 3개가 필요하다.

식수

대체로 수질이 좋아 수돗물을 식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매우 많이 들어 있으므로 생수 구매 또는 정수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www.autoscout24.ch 등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에서 원하는 차종, 연수, 주행거리 등을 확인하고 해당 매장을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다(반드시 사전에 방문 약속 필요).

딜러와 계약을 진행하며 자동차 보험 가입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도 용이하다.

차량가격

현지에서는 완성차가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스위스 물가 자체가 높아 주변국가에 비해 같은 차종의 가격이 1.3~1.5배 정도 비싸다는 평이다. 차량 가격은 온라인 자동차 판매 플랫폼을 통해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스위스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입국 후 1년간 운전이 가능하나, 그 이상 체류할 시 스위스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국내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을 받고(현지 영사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서/면허증 원본/번역공증/체류허가증(현지신분증)/시력검사결과를 관할지역 교통청에 제출하면 스위스 면허증을 거주지로 우편 송부해준다. 시력검사에 약 20 스위스 프랑, 교통청 신청에 105 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취리히의 경우 신고 서식(Gesuch Umschreibung ausIndischer Führerausweis)을 다음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http://www.zh.ch/internet/sicherheitsdirektion/stva/de/StVAform.html>)

스위스에서 면허를 새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6년 이내에 발급받은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과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력검사서가 있어야 한다. 그 이후 신분증과 사진 2매를 지참하여 관할청에 가면 신분 증명을 진행한 뒤 교육면허증을 위한 신청이 완료된다. 교육면허증 신청 후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면허를 발급받은 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면 실제 운전면허를 위한 운전 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통해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Kantonal Bank: 지역별로 앞에 이름이 붙으며(ex.Züricher kantonal Bank) 직역하자면 주립은행이다.
- UBS: 바젤과 취리히에 본사를 둔 은행으로 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약자이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다.

계좌 개설방법

UBS 등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개설한다. 통상 큰 은행일수록 급여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체류증(Auslaenderausweis)은 계좌 개설 시 필수 구비사항이다. 최근 불법자금 유통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현지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기에 앞서 사전에 현지은행에서 금액과 시기, 국내 은행명 등을 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International School Basel

도시명	Basel
커리큘럼	만 3~11세, 11~16세, 16~19세별로 각 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22,000~36,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isbasel.ch/index.cfm
비고	바젤 소재 미국계 국제학교. 1979년 개교

o British School Bern

도시명	Bern
커리큘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 만 3~12세 등록 가능한 과정 제공
학비	약 25,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britishschool.ch/
비고	베른 소재 영국계 국제학교. 1988년 개교

o Zurich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초중고 12년제 과정 운영.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30,000~38,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zis.ch/
비고	취리히 소재 미국계 국제학교. 1963년 개교

o International School Zurich North(ISZN)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만 3~18세 등록 가능한 과정 제공.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약 25,000~37,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icsz.ch/
비고	취리히 소재 다문화 공동체 학교. 1960년 개교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현지학교

○ Freies Gymnasium Basel

도시명	Basel
커리큘럼	유초중고 과정 제공, 중고등학교 통합 6년과정.
학비	약 27,500~33,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s://www.fg-basel.ch/de/
비고	바젤 소재 사립학교, 1889년 바젤 최초 사립학교로 설립

○ Freies Gymnasium Bern

도시명	Bern
커리큘럼	중학교 대비반 및 중고등학교 과정
학비	약 15,000~25,000 스위스 프랑/연
홈페이지	http://www.fgb.ch/
비고	베른 소재 사립학교, 1859년 기독교 재단에 의해 설립

○ Kantonalschule Zurich Nord

도시명	Zurich
커리큘럼	고등학교 인문계 과정. 과정별 4~6년 과정(단기/장기/기술 과정). 영어/독일어 과정 졸업증 발급, 장기 교과과정의 경우 국제공인교육과정 IB과정 제공
학비	해당 주 학생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www.kzn.ch/
비고	취리히 소재 공립 학교. 해당 주 이외 학생 수업료 발생, 기타 실습비용, 교재비, 현장체험비용 별도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Inselspital

도시명	Bern
주소	Freiburgstrasse 15, 3010 Bern
전화번호	+41 31 632 2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베른 소재 종합병원
----	------------

○ Geneva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Geneva
주소	Rue gabrielle perret gentil 4, 1205 Geneva
전화번호	+41 22 372 33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제네바 소재 종합병원

○ Stadtspital Triemli

도시명	Zurich
주소	Birmensdorferstrasse 497, 8063 Zurich
전화번호	+41 44 461 11 1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취리히 소재 종합병원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St. Jakob-Park Shopping Center

도시명	Basel
주소	St. jakops-strasse 397, 4052 Basel
홈페이지	https://st-jakob-park.com/
비고	바젤 소재 종합 쇼핑몰

○ Westside

도시명	Bern
주소	Riedbachstrasse 100, 3027 Bern
홈페이지	http://www.westside.ch/
비고	베른 소재 종합 쇼핑몰

○ Sihlcity

도시명	Zurich
주소	Kalanderplatz 1, 8045 Zurich
홈페이지	https://sihlcity.ch/
비고	취리히 소재 종합 쇼핑몰

<자료원 : 각 쇼핑몰 홈페이지>

- 식품점

○ New Asia Market

도시명	Basel
주소	Rheinfelderstrasse 1, 4058 Basel
취급 식료품	한국라면 등 아시아 식료품
비고	바젤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 Shanghai Asiatische Waren AG

도시명	Luzern
주소	Hirchengraben 43, 6003 Luzern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포함 아시아 식료품
비고	루체른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 Yumihana

도시명	Zurich
주소	Bahnhofquai 9/11, 8001 Zurich
취급 식료품	한국 식재료, 라면 등
비고	취리히 소재 아시아 식료품점

<자료원 : 각 식료품점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Only Fitness

도시명	Bern
주소	Parkterrasse 14, 3012 Bern

홈페이지	https://www.onlyfitness.ch/
소개	베른 소재 피트니스 센터
비고	베른 중앙역 인접

○ Piscine de Vernets

도시명	Rue hans-wilsdorf 4, 1227 Geneva
주소	Geneva
홈페이지	http://www.ville-geneve.ch/plan-ville/sports/piscine-vernets
소개	제네바 소재 수영장
비고	실내, 실외, 어린이풀 보유

○ Migros Fitnesspark Stockerhof

도시명	Zurich
주소	Dreikoenigstrasse 31A, 8002 Zurich
홈페이지	https://www.fitnesspark.ch/
소개	취리히 소재 피트니스센터
비고	스파, 마사지 시설 보유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사. 현지 공휴일

없음.

10. KOTRA 무역관 안내

○ 취리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Claridenstrasse 22, 8002 Zurich, Switzerland
- 전화번호: +41 44 503 5300
- 팩스: +41 44 202 4318
- 이메일: ktc@kotra.ch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기차: Zurich Hauptbahnhof에서 하차(복수 노선 운행) 후 11번 트램으로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트램: 공항에서 10번 트램 탑승, Milchbuch에서 9번으로 환승, Boersenstrasse 하차, 트램 진행 방향을 보고 오른쪽 도로로 도보 3분 이동
 - 택시: 공항에서 일반 택시 이용 시 약 60스위스프랑 예상
- 건물 도착 후
 - VZ 맞은 편 입구로 들어온 후, 1층 오른쪽 문 이용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2023 다보스 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2023)	2023-01-16 ~ 2023-01-20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2023 제네바 발명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of Geneva 2023)	2023-04-26 ~ 2023-04-30	제네바	Palexpo
2023 스위스 제네바 비타푸드 (Vitafoods Europe 2023)	2023-05-09 ~ 2023-05-11	제네바	Informa PLC
2023 스위스 자동화 전시회 (Sindex 2023)	2023-09-05 ~ 2023-09-07	베른	Sindex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